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위층에 무언가

(SOMETHING UPSTAIRS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英學科

張 姣 朱

2016年 2月

# 위층에 무언가

(SOMETHING UPSTAIRS 翻譯論文)

指導教授 김 원 보

張 旻 朱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2月

朴炤炯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6年 2月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박하기 마련이다.

- 산타야나

##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내가 들었던 것 중 가장 기묘한 이야기이다.

나는 어린 아이들이 읽는 책을 쓰기 때문에 학교에 자주 가보는 편이다. 가끔씩 작업실을 벗어나서 독자들이 사는 세상으로 가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더욱이, 나는 아이들을 좋아한다.

내가 찾아가면 흔히들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좋은 책이 될 것 같은 소재라며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책을 쓸 아이디어를 얻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다.

어느 날인가도 그런 일로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서 선생님 한 분이 나를 한쪽으로 데리고 갔다.

“작가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이 비밀스럽게 얘기했다.

“제 스케줄에 맞춰서 만났으면 합니다만.” 나는 정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다. 그날은 이미 스케줄이 차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해요.”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작가님 책도 다 읽었대요.”

“전부 다요?”

“전부 다요.” 선생님이 말했다.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순간 으쓱하는 마음이 든 것도 사실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나는 작게 말했다. “글쎄요, 어찌면…….”

선생님이 내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잘됐네요. 작가님 점심식사 하실 때 잠깐 짬 내셔도 되는데…….” 점심때는 그냥 식사만 하겠다고 말하기도 전에 선생님은 이미 가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식사를 절반정도 마쳤을 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애비 작가님?” 선생님이 그 학생을 데려온 것이었다. “애가 케니 허도프예요.” 선생님이 말했다. “케니, 이 분이 애비 작가님이야.”

언뜻 보기에 케니 허도프에게 특이한 점이랄곤 딱히 없었다. 몸집이 작은 편이긴 했지만 어느 모로 보나 곧 지금보다 두 배는 자랄 같았다. 머리카락은 짧고 연한 색이었다. 뺨에 아이 같은 주근깨가 나 있었다. 얼굴이 상기되고 셔츠 주름이 퍼진 걸로 봐서는 분명 체육관에서 오는 길 같았다.

“안녕, 케니.” 말을 걸면서 손을 내밀었다.

케니는 내 손을 잡고는 머뭇거리며 악수를 했다. 뺨히 쳐다보기도 했다. 이미 여러 번 본적이 있는 눈빛이었지만, 그 눈빛이 경외심에서 나왔는지 혹은 실망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조용한 방을 마련해놨어요.” 선생님이 말했다.

나는 마지못해 일어났다. 곧이어 작은 방에는 우리 둘만 남겨졌고,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선생님이 나가고 문이 굳게 닫혔다.

같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케니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케니가 먼저 앉고 내가 마주보고 앉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케니가 긴장하고 있기는 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그다지 느낌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 케니는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내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말을 먼저 꺼내보기로 했다. “나와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던데.” 내가 말했다.

“작가님 책을 다 읽었어요.” 케니가 열쇠고리를 만지작대며 입을 뗐다.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구나.”

케니는 꼬덕이며 말했다. “책에 있는 건 전부 작가님이 직접 겪은 일인가요?”

내가 답했다. “그런 건 거의 없어. 경험했던 것보다는 주로 상상력, 감정, 봤던 것, 들었던 것을 동원해 글을 쓰지……. 그건 그렇고, 그 열쇠고리 좀 치우면 안 될까? 집중이 안 돼서.”

케니의 눈에 두려움이 번졌지만 이내 사라졌다. 그리고는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말했다. “그럼 기억에 대한 건요?”

“기억?”

“그러니까, 작가님 책에서 예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나요?”

“방금 말했잖아, 거의 없다고.”

“아니 제 말은, 누군가의 기억을 바탕으로 쓴 책이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케니가 쏘아붙였다.

당황스러우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화제를 바꾸는 것 뿐이었다. “책에서 어떤 부분에 재미있었니?”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은 웬지 제게 일어난 일을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응?”

아이는 불만의 표시로 어깨를 추씩거렸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이상하대요.”

나는 그냥 일어나 주자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아이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았다. “알겠어. 나한테 말해봐.” 딱딱한 나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정말요?”

“네가 바라던 거 아니야?”

“맞아요…….”

나는 시계를 보며 재촉했다. “케니, 빨리 말해봐. 시간이 별로 없어. 이제 열쇠고리를 내려두고 얘기해봐.”

내가 말을 마치자 케니는 심호흡을 하며 열쇠고리를 주머니에 넣어두고서 이

야기를 시작했다.

\* \* \*

앞서 말했듯이 이 이야기는 내가 들었던 것 중 가장 기이한 이야기이다. 점심 시간이 훌쩍 지나 학교를 마치고 그 날 저녁까지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둘째 날엔 프로비던스 호텔에 머물면서 케니에게 들은 얘기들을 되짚어 봤다.

생각을 마치고는 케니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책으로 쓰겠다고 제안했다. 다행히도 케니 허도프는 내 제안에 동의해주었다.

\* \* \*

이게 그것이다. 그가 한 이야기. 내가 이글을 쓰긴 했지만 난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 제 1 장

적어도 케니 허도프에게 있어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는 완벽한 곳이었다. 케니가 거기 사는 동안은 봄과 여름 날씨뿐이었다. 비도 전혀 오지 않았다. 거리에는 오렌지 나무와 레몬 나무가 줄지어 있었고, 곳곳마다 꽃이 가득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야외활동이든지 할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에 해변으로 떠나는 소풍도 그리 어려울 게 없어 케니 가족은 매년 여름마다 소풍을 떠나곤 했다.

언제든 야구를 할 수 있는 날씨가 이어졌고, 케니는 거의 매일 야구를 하러 나가곤 했다. 케니는 LA다저스의 광팬이라 자부하며, 어딜 가든 항상 주머니에 행운의 다저스 열쇠고리를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다. 그래서 케니는 부모님이 멀리 떨어진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 일자리와 집을 구했다고 했을 때 썩 반기지는 않았다. 케니는 로드아일랜드가 태평양에서 멀찍이 떨어진 대서양 근처에 있다는 것 말고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다. 지도책을 확인하고서야 로드아일랜드가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이고, 너무 작아서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보다도 작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로드아일랜드는 “작은 로디”라고 불렀다.

로드아일랜드 사람들이 로드아일랜드를 “대양 주”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주의 신조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케니는 희망적인 뭔가를 느낄 수 없었다. 4월 마지막 주에 이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날 그 프로비던스에는 눈이 왔다. 케니는 산꼭대기에 덮인 눈을 보았지만 저 멀리엔 있을 뿐이었다.

케니는 학년을 마쳤다. 온가족이 짐을 싸고는 차를 몰아 동쪽으로 향했다. 8월 중순이 되어서야 고속도로를 벗어날 수 있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좌회전을

세 번 더 하고 나자 셸던 스트리트에 이르렀다.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프로비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엄마가 말했다

케니가 그 날 본 광경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길은 좁았고 붐볐으며 낡았다. 공기는 후덥지근했다. 거대한 야자수나 향긋한 오렌지 꽃은 없었고, 앙상한 나무들과 구식 가로등만 있을 뿐이었다. 일부 건물들이 벽돌로 지어지긴 했지만 대부분은 나무 건물이었다. 많은 건물에는 이상한 이름과 옛날 낱자가 새겨진 명패가 있었다.

“건물이 지어진 해야.” 엄마가 설명했다.

“우리 집이다.” 아빠가 길 건너 15번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케니가 눈길을 돌렸다. 나무 벽과 덧문이 쳐진 창문에, 높은 천장을 가진 넓은 크림색 삼층집이었다. 벽돌로 된 좁은 돌계단 위에 어두운 갈색 현관문이 있었다. 이렇게 쓰인 명패도 있었다.

#### 다니엘 스틸웰의 집

1789년 완공

안에는 복도와 가파른 계단이 있었다. 그 양 옆으로는 비교적 큰 방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케니는 아래층과 위층을 방마다 둘러보았다. 이삿짐을 날라주는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아 방은 아직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케니는, 그 때부터 빈 집이 아니라는 분명한 느낌이 들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무슨 생각하니?” 엄마가 물었다.

“아니에요.” 케니가 감정을 추스르려 하며 대답했다. “제 방은 어디예요?”

“좋은 생각이 있다. 따라오렴.” 아빠가 말했다. 아빠는 부엌으로 가서 케니가 보지 못했던 문 쪽으로 갔다. 그 문은 두 개의 좁은 나선식 계단으로 이어져 있었다. 케니가 아빠를 따라갔다. 엄마는 또 케니를 뒤따랐다.

세 사람은 가장 위에 길고 탁 트인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바닥 쪽에 딱 붙은 낮은 창문 두 개와, 위쪽에 천장 기둥이 있었고, 또 이제 막 사포질과 기름

칠 된 바닥이 깔려 있었다. 새로운 침실이였다. 전체적으로는 밝았지만 덥고 퀴퀴했다.

“어떠니?” 엄마가 웃으며 물었다.

케니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말했다. “제 방으로요?”

아빠 역시 웃으며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요?” 케니가 말했다. 집에 들어온 뒤로 처음으로 웃고 싶어졌다. 케니가 본 방은 이때까지 가졌던 어떤 방보다 컸으며 비밀스럽기도 했고 특별하기도 했다.

엄마가 말을 이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여기에 살지 않았어. 우리가 전부 단장해놓은 거야. 원한다면 네 방으로 써도 좋아.”

“더 시원하네.” 아빠가 덧붙였다. 그는 천장에 있는 채광창에 손을 뻗어 막대기를 당겼다. 활짝 열린 채광창이 숨을 헐떡이는 입 마냥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시원해지기 시작했다.

케니는 방을 어떻게 단장할까 생각하며 걸었다.

그러자 아빠가 제안했다. “원한다면 아래층에 있는 침실을 써도 좋아.”

“그냥 이 방을 쓸 게요.” 케니가 답했다.

케니는 다락방 정 반대쪽 끝에 있는 문 두 개를 발견했다. 그 중 하나를 당겨서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가로·세로가 3m·4m에 불과한 작은 방이었고 천장은 경사가 가팔랐다. 벽장이 들어가기에는 컸지만 다른 뭔가를 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았다.

아빠가 어깨 너머로 바라보았다. “하인들이 살던 방이었겠구나.” 아빠가 얘기했다.

“정말 작네요.” 케니가 답했다.

“좋았던 시절이었지.”

“여기가 원래 바닥과 벽이야. 집을 점검해준 조사관 보스코씨가 여기를 봤을 때 아주 신이 났었지.” 엄마가 얘기했다.

케니가 말했다. “지저분해 보이네요.”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옛날 집을 생각해봐.”

케니가 두 번째 문을 당겨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첫 번째 방보다 작았고,

퀴퀴한 냄새가 심하게 나서 우중충하고 더웠다. 창문도 없었다. 늘어진 바나나 껍질처럼 누런 종이가 벽에 걸려있었다. 어두운 얼룩이 바닥 가운데에 덮여 있었다.

케니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부모님 중 한분이라고 생각하며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 곳엔 아무도 없었다.

“아빠? 엄마?” 케니가 불렀다.

“내려오렴!” 계단 아래서 소리가 들렸다.

뒤통수를 들었다는 확신이 든 케니는 다시 작은 방으로 갔다. 바닥 위 얼룩에 눈길이 갔다. 얼룩을 보면서 케니는 그게 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케니는 마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고개를 젓자 그런 생각은 사라졌다. 곧 괜찮아졌다. 얼룩은 단지 얼룩일 뿐이었다.

\* \* \*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집. 뜯지 않은 채 높이 쌓인 상자들. 커튼이 없는 많은 창문들. 분류하고 정리해야 할 물건들. 끝없이 이어지는 수리. 페인트칠해야 할 방들.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 날은 더웠고 숨만 쉬어도 땀이 날 만큼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졌다. TV 기상캐스터는 기온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고, 예보는 정확했다. 사람들이 에어컨 주위로 모여들어 거리는 한산했다.

케니가 기억하는 바로는 지루했다. 또 초조했다. 가서 시간을 보낼만한 곳을 찾아봤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부모님은 바로 일을 시작했고, 친구도 없을 뿐 아니라 학교도 몇 주 간 방학이었기 때문에 케니는 대부분 하루를 혼자 보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데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케니가 알게 된 것은 프로비던스가 평범한 도시는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연석 위에는 말을 메어두는데 필요한 돌기둥과 마차에 올라탈 때 쓰이는 받침대가 있었다. 마당에는 조약돌이 있었고 명판에는 에섹 움스비나 펠렉 콤비처럼

특이한 이름들이 있었다. 집에서 두 블럭만 지나면 250년 된 건물이 있었다. 이는 미국 독립혁명보다 오래된 것이었다. 또 프렌치 인디언 전쟁보다 오래된 것이기도 했다.

허도프 가족이 새로 이사한 집은 그런 오래된 건물들 중 하나였다. 집을 소개해 준 부동산 중개업자는 케니 가족이 이사 온 뒤에 1636년부터 지금까지 그 집과 집터의 역사를 보여주는 스크랩북을 갖다 주었다. 지도와 증서들, 또 현재의 지역 사진은 케니가 집이 전에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딱히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케니는 지금 그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케니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다. “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지? 어떻게 생겼을까? 우스꽝스러운 옷과 드레스를 입고 가발을 썼을까? 어린 애도 있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죽게 되었을까?”

\* \* \*

케니는 무더운 날 가족이 이사 오고서 보낸 며칠 밤 동안 잠들기가 어려웠다고 회상한다. 겨우 잠들었을 때는 모기 때문에 깨곤 했다. 적어도 케니는 그게 모기라고 생각했다.

반쯤 잠에서 깬 케니는 손전등을 찾으려 옆쪽을 더듬고는 손전등으로 시계를 비쳤다. 새벽 2시 35분이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락방 구석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달빛이 열린 채광창으로 충분히 스며들어 방에는 뿌옇고 두텁게 부드러운 노란 빛이 들었다.

케니는 베개의 시원한 부분을 찾아 편히 누우려 했다. 하지만 하인들이 다락방에 달려 있는 그 작은 방에 살았다는 아빠의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하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더운 여름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케니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박쥐나 올빼미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케니는 가만히 누워 그 소리를 열심히 들었다.

또다시 소리가 났다. 케니는 그 소리가 사포로 나무를 굽거나 천천히 문지를 때 나는 소리처럼 뭔가를 굽는 소리 같았다고 얘기한다.

케니는 이내 일어나 앉아 다락방 구석을 살펴보기 위해 옆에 있는 손전등을 밝혀 그 소리가 어디서 정확히 나는지를 알아내려 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 환청이었을 수도 있다.

잠자기로 마음먹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작은 방들이 있는 다락방 끝에서 난다고 확신했다.

케니가 손전등을 가지고 침대에서 나왔다. 쥐 때문에 성가신 적은 없었다. 하지만 케니는 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신발 한 짝을 들고서는 망치처럼 앞부분을 잡았다.

케니는 한두 발자국마다 멈춰서며 가능한 한 조용히 살금살금 움직였다. 이따금 부드럽게 굽히는 소리가 들렸다. 또 그러다가 들리지 않기도 했다. 케니는 그 소리가 바닥에서 뭔가를 밀거나 끄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케니가 첫 번째 방문 앞에 섰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다. 케니는 다른 방에 들어갔을 때 소리를 내는 물체가 뭐가 됐든지 간에 도망가 버릴까 두려워 확실히 맞는 방을 찾고 싶었다.

잠시 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케니는 팔에 손전등을 끼고 손잡이에 손을 뻗어 돌린 뒤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었다. 다시금 손전등을 꼭 쥐고 몸을 앞으로 숙여 살펴보았다.

부모님이 놓아둔 두 개의 상자 위로 한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내려앉았다. 보이는 거라곤 그게 전부였다. 손전등을 켜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리가 다시 들리기를 바라며 케니는 기다렸다. 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 그 소리는 다른 더 작은 방에서 났다. 케니는 손전등을 끄고는 숨을 고르고 그 문 쪽으로 가서 문을 당겨 열었고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바닥에서 가장 밝은 반짝이는 하얀 불빛이 창문이 없는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케니가 본 것은, 혹은 케니가 봤다고 생각했던 것은 두 손과 두 팔이었고, 그 손발은 얼룩에서 나와 그 얼룩 위에 있던 엄마의 옛날 책들을 놓아둔 상자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 손과 팔은 피부나 피가 아닌 조각되어 빛이 나는 연기처럼 보였다. 사람 몸이 그 상자 밑에서 벗어나려는 것처럼 보였다.

놀란 케니가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실체가 아니라고 혼잣말을 하고는 그 광경을 보면서 서 있었다. 아마 꿈일 것이다. 일종의 환상 같은 거야. 실체가 아니야.

팔이 상자를 얼룩에서 조금씩 밀었다. 힘들어보였다. 힘을 주었는지 팔 근육이 불끈 나왔다. 가끔씩 지친것처럼 팔은 잠시 쉬기도 했다. 그리고 작지만 완전한 손가락이 있는 손이 상자의 모서리를 잡자 그 고통이 느껴졌다.

상자를 미는 데는 한 시간이 걸렸다. 케니는 모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일이 모두 끝났을 때 손이 바닥에서 나와 상자를 잡고는……몸이 나왔다.

얼룩에서 머리가 나왔다. 그다음 목이 나왔다. 그리고는 어깨. 그다음 몸 나머지 부분. 곧 몸 전체가 바닥 위에 서서 가만히 기다렸다. 은은하고 옅은 고동치는 빛이 몸에서 뿜어져 나와 공기와 물체사이에 모호한 경계를 만들었다. 양쪽 다 특별한 건 없었다. 그 물체가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말고는 특별할 게 없어 보였다. 인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맨발이었다. 하지만 케니는 접어입지 않은 바지와 셔츠를 봤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한다. 그 낡은 셔츠 소매는 팔꿈치와 손목 사이에 내려와 있었다. 그 얼룩은 셔츠 뒤쪽에 퍼져있었다.

케니는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이 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케니가 바라보자 그 소년은 멀리 있는 벽 쪽으로 다가가 마치 뭔가를 찾는 듯, 나가는 문을 찾으려는 듯 벽의 표면을 느끼기 시작했다.

소년은 두 번째 벽도 살폈다. 또 세 번째 벽도 살펴보았다.

케니는 손전등을 더듬어 그쪽을 향해 불을 쬐다. 빛이 그 소년을 통과했다. 그 소년은 그림자가 없었다.

바로 그때, 케니는 전율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 소년이 문 쪽 벽으로 오려하는 모습을 보았다. 둘은 마주보게 되었다.

소년이 뒤를 돌았다. 눈이 마주쳤다. 갑자기 그 소년은 케니 쪽으로 손을 뻗었다. 케니는 방어적으로 신발을 들어 반응했다. 그 소년은 맞을 걸 예상한 것처럼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소년은 사라지고 케니는 텅 빈 방에서 허공을 응시한 채 혼자 남겨졌다.

소년은 마치 케니를 두려워한 것 같았다.

## 제 2 장

케니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채광창으로 쏟아져 내리며 자신을 깨우는 아침 햇살이다.

아침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케니는 벌떡 일어나 그 방을 살피러 갔다. 찾은 거라곤 전처럼 작고 지저분하고 아주 칙칙한 텅 빈방뿐이었다. 하지만 책이 들어 있는 그 상자 하나가 얼룩에서 비껴져 있었다.

다시 그 얼룩을 바라보며 케니는 얼룩을 처음 봤을 때 했던 생각을 떠올렸다. 얼룩이 죽음과 관련 있다는 생각이었다. 케니가 사람이나 죽음을 떠올릴 만 한 여지가 얼룩 그 자체에는 없었다. 단지 어두운 얼룩이었을 뿐이다. 그리고서 케니는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궁금해졌다.

\* \* \*

케니는 부모님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것을 보고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오늘은 뭐 할 일이 있니?” 엄마가 물었다.

케니는 고개를 젓고서는 의자에 앉아 주스를 마시고 접시에 시리얼을 부었다.

엄마가 말을 이었다. “누가 수영 클럽에 대해 얘기하던데. 엄마 생각엔 케니 네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 다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재밌을 것 같지 않니?”



“네.” 케니가 말했다.

“내가 조금 일찍 퇴근할게. 그때 같이 가 봐도 되고 아니면 혼자 가도 돼.” 아빠가 말했다.

“어디 있는데요?” 케니가 물었다.

아빠가 대답해 주었다. 케니는 수영장이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동네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저 혼자 갈게요.” 케니가 말했다.

엄마가 출근 하며 케니에게 뽀뽀해주었다.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서 어찌니. 곧 학교에 가게 될 거야.” 엄마가 말했다.

“재미있게 놀고 있을게요.” 케니가 큰소리 쳤다.

“좋아. 안 그러면 나중에 혼낼 거야.” 엄마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농담을 던졌다.

엄마의 말에 케니의 마음이 흔들렸다. “엄마!” 엄마가 막 현관에 이르자 케니가 불렀다.

엄마가 멈췄다.

“혹시 유령을 믿으세요?” 케니가 물었다.

“유령?” 엄마가 놀라며 되물었다.

“네, 유령이요.”

아빠가 신문을 읽다가 놀라며 올려다보았다.

“그런 건 왜 물어보니?” 엄마가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아니, 안 믿어.” 엄마는 말했다. 손을 흔들고 웃으며 엄마가 집을 나섰다.

아빠가 신문을 부스럭댔다. “그런 건 왜 묻니?” 아빠는 알고 싶었다.

케니는 곰곰이 생각해봤다. 아빠에게 다락방에 유령이 있는 것 같은 말을 선택하기란 힘들었다. “꿈을 꿴어요. 위층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겨우 대답했다.

아빠가 웃었다. “위층에 뭔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케니는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싶은 거지. 비밀 말이야.” 아빠가 투명스럽게 말했다.

“그럼 유령은요?” 케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가 싱긋 웃었다. “이 세상에 귀신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여기일거야.”

“왜요?” “프로비던스는 정말 오래된 도시거든. 여기서 틀림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야.”

“아빠는 유령을 믿으세요?” 케니가 물었다.

“아니.” 아빠가 대답하며 다시 신문을 들었다.

“아빠?”

“왜?”

케니가 물었다. “우리가 받은 그 스크랩북 아시죠?”

“우리 집에 대한 그 책? 당연하지.” 아빠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거기에 이름들이 다 있어요.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요…….”

“그래.”

“그 사람들에게 대해 더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 싶은 게 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직업은 뭐였는지. 함께 살던 아이들도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이요.” 케니는 대수로운 일이 아닌 듯 말했다.

“너 이 집이 정말 좋구나?”

“그런 것 같아요.” 케니가 소심하게 답했다.

“네가 몰두할 수 있는 게 생긴 것 같아 기쁘구나. 지루하게 시간을 보낼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다. 사람들에게 가끔씩 이상한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 특히 할 일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래서 네 계획이 더 보람 있을 것 같구나. 넌 우리 동네 역사학자가 될 거야. 도서관에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빠가 말했다. 아빠는 전화번호부를 가져와 책장을 넘겼다. “아이브스 스트리트에 도서관이 있네. 어디 있는 거지?”

“멀지 않아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케니가 말했다.

\* \* \*

아침을 먹고 케니는 방으로 올라가 집에 대해 정리한 스크랩북을 꺼냈다. 스크랩북에서 케니는 그 집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윌리엄 가족	(1636-1743)
셸던	(1743-1769)
스틸웰	(1769-1845)
블레이스델	(1845-1849)
로턴	(1849-1867)
레이크	(1867-1890)
비키	(1890-1912)
버터	(1912-1929)
마이어스	(1929-1930)
살라자르	(1930-1947)
플러드	(1947-1963)
멜턴	(1963-1987)

집은 셸던 스트리트에 있었다. 케니는 거기에서 연결고리를 찾았다. 나머지 이름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케니는 이름 목록을 베껴 쓰고는 집을 나섰다.

아이브스 스트리트에 있는 도서관에서 프로비던스에 대한 책 몇 권을 재빨리 찾았다.

케니는 프로비던스가 작은 것 치고는 많은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로드아일랜드에 처음으로 정착지를 설립한 로저 윌리엄스에 대해 배웠다. 프로비던스 사람들이 이에 맞서 어떻게 메사추세츠주와 코네티컷주뿐 아니라 영국 왕과 싸웠는지, 프로비던스가 어떻게 해서 로드아일랜드에 합쳐져 “로드 섬과 프로비던스 식민지”라는 공식명칭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최초의 대규모 미국 인디언 전쟁이 도시 근처에서 대학살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케니는 미국 독립혁명의 발단이 된 개스피호가 불에 탄 것에 대해서도 읽었다. 로드아일랜드 사람들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도 배웠다.

케니는 유명한 프로비던스 항해사들과 상인들에 대한 부분도 읽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 항해했는지, 어떻게 해서 중국에 간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 또 럼주와 당밀을 교역해 어떻게 부유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사람들은 이전에는 민주적 이상으로 가득했었지만 노예 매매가 불법이 된 지 한참 뒤에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들을 미국 남부에서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어떻게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케니는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집은 말할 것도 없었다.

케니가 사서에게 그가 찾는 것을 물어봤을 때 사서는 “역사도서관에 가면 찾는 게 있을 거야. 거기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다루거든. 여기서 일곱 블럭만 가면 호프 스트리트와 파워 스트리트가 만나는 교차로에 있어.”

\* \* \*

역사 도서관은 낮은 건물들 중 하나로 어딘가 가라앉은 커다란 어두운 갈색 건물이었다. 안에 들어가려면 벨을 눌러야 했고, 안으로 들어가자 메인 데스크에 있던 사서가 질문을 던졌다.

“알아볼 게 좀 있는데요.” 케니가 사서에게 말했다.

사서는 공책을 내밀어 케니에게 펜을 건네주었다. “여기에 이름만 써줄래?”

케니가 이름을 썼다. 사서가 이름을 보았다.

“허도프라……. 익숙한 이름이네.” 사서가 중얼거리고는 서랍에서 카드를 꺼냈다. “맞아. 아침에 메시지를 받았지. 위층 행정실에서 누가 널 기다리고 있어.”

“저를요?”

“셸던 스트리트 15번지지?”

케니가 끄덕였다.

“이 책들을 보려면 행정실에 가서 허락 먼저 받아야 할 거야.”

“행정실은 어디 있어요?”

“복도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계단이 보일거야.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돌아. 오른쪽에 보이는 처음으로 열린 문으로 가면 돼. 알겠니?”

케니는 자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사람이 없는 복도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 계단을 올라갔다. 위층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돌기 전에 멈춰서 어느 쪽으로 갈 지에 대해 되짚어 봐야 했다. 그곳에서 케니는 열린 문을 찾았다. 케니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케니가 들어간 곳은 기다란 관 모양 창문을 통해 드리워진 레몬빛깔을 띤 한 줄기 빛을 제외하고 어두웠다.

벽은 책장으로 가득했고 책장은 누렇게 바랜 문서와 상자와 책으로 채워져 있었다. 공기는 먼지로 가득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책상이 있었고, 그 책상 뒤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있었다. 그는 왜소하고 말랐으며 백발이었다. 잘 다듬어진 손톱이 나 있는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다.

책상 앞에는 황동으로 된 명패가 있었다. 명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파든 윌링햄스트

역사학자

“저기요?” 케니가 마침내 입을 뗐다. 케니는 그 남자가 알아채지 못하자 잠시 그 앞에서 있었다.

남자가 올려다보았다. 많은 도로가 그려진 지도처럼 주름진 양피지 빛을 한 남자의 얼굴은 낮 동안 햇빛을 보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짙고 깊었다. 표정은 어두웠다. “뭘 도와줄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케니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허도프. 아, 그래.” 남자가 말했다. “셸던 스트리트 15번지로 가족이 이사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니?” 남자가 몸을 일으켰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케니가 물었다.

나이든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말했다. “이사 온 사람들 소식이 신문에 실리거든. 예전에 살던 집 주인들을 한 번 찾아보고 싶어서 왔구나. 그게 바로 여기 도서관에서 찾아오는 새로운 집주인들에게 내가 해 줄

일이지.”

케니는 그 말을 듣고 윌링헤스트에게 자신의 집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다. “살았던 사람들 목록을 가져왔어요. 제가 뭘 좀 찾아봐도 될까요? 도서관을 이용해도 돼요?” 케니가 말했다.

“네가 가져온 목록 좀 봐도 될까?” 윌링헤스트가 물었다.

케니가 목록을 건넸다. 케니는 윌링헤스트가 목록을 읽어보는 동안 자신의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윌링헤스트가 마침내 케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니?”

케니가 고개를 저었다.

“이 사람들에 대해 뭔가 더 알기는 어려울 거다. 이 목록 말고 다른 게 더 있다면 모를까. 네가 좋다면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자료를 살펴보마. 내일 다시 오렴. 그러면 내가 찾은 것들을 말해줄게. 그래도 괜찮겠니?”

케니가 좋다고 했다.

\* \* \*

또다시 케니는 자신의 다락방에서 그 방을 보며 그 얼룩에 눈길이 쏠린 채 서 있었다. 마침내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을 만져보았다. 차가웠다.

바로 그 때 케니에게 생각이 떠올랐다. 케니는 보이스카우트 칼을 이용해 그 얼룩에서 나무 바닥 조각을 떼어내 조심스럽게 화장지로 감쌌다.

모아둔 용돈을 주머니에 넣은 뒤 케니는 약국이 있는 가까운 위켄덴 스트리트로 그 조각을 가져갔다.

“무슨 일이니?” 하얀 가운을 입은 약사가 인사했다.

“좀 이상하긴 한데요.” 케니가 갑자기 어색함을 느끼며 말했다.

“말해보렴.” 약사는 웃으며 말했다.

케니는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 살고 있는지, 또 자신의 가족이 이제 막 이사 왔다는 사실까지 설명했다. 집을 수리하고 있고 바닥 페인트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 한쪽에 얼룩이 있다고 했다. 케니는 페인트칠을 하기 전에 부

모님이 그 자국이 무슨 자국인지 알고 싶어 한다고 얘기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는 감싼 화장지를 풀어 약사에게 그 조각을 건넸다.

약사는 그 조각을 들었다가 다시 주고는 말했다. “그렇게 이상한 부탁도 아니네. 화학 분석하러 보내줄 수는 있어. 비용이 좀 들 거야.”

“얼마나요?”

“아, 10달러야…….”

케니는 주먹에 쥔 동전을 세 보았다. 겨우 낼 수 있는 정도였다.

약사가 이름을 물었다.

케니가 이름을 대고는 물었다. “얼마나 걸릴까요?”

“분석이 끝나는 대로 연락해줄게.” 약사가 대답했다.

케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왔다.

\* \* \*

저녁을 먹으면서 케니가 부모님에게 물어봤다. “유령들은 왜 집에 나타날까요?”

아빠가 엄마를 봤다. “케니가 어젯밤에 유령 꿈을 꿔대.”

“오, 케니.”

아빠가 이어서 말했다. “일단은 말했던 것처럼 난 유령을 믿지 않아. 두 번째로는 유령이 집에 사는 건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야.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집에 남게 되는 거지. 그것도 아니면 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적어도 아빠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야. 행복한 유령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 당신은 들어본 적 있어?” 아빠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생생한 꿈일 뿐이야, 케니.” 엄마가 말했다.

“오래된 집에, 오래된 도시에 살고 있잖아. 많은 기억들이 여기 있겠지.” 아빠가 말했다.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유령이 있는 집은 믿지 않아. 그렇지만 기억이 많다는 건 인정해.”

케니는 그 생각을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그 둘이 뭐가 다른데요?” 케니가 물었다.

엄마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잘 모르겠네.”

바로 그 때 케니는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먹었다. 그날 밤 케니는 2시 15분에 알람을 맞추고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보기로 했다.



## 제 3 장

케니는 알람 때문이 아니라 그 작은 방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다는 확신이 들었다.

쿵쾅대는 심장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두시가 조금 지나 있었다. 서둘러 알람 스위치를 끄고 소리를 들었다.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케니가 전에 들었던 것과 같이 불규칙적으로 뭔가 굽히는 소리였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그 소리가 유령이 내는 소리라면 그 유령이 자신을 깨우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케니는 빠르지만 조용하게 침대에서 나와 바로 다락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 작은 왼쪽 방문을 조금 열었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하면서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었다. 문이 1cm쯤 더 열렸고, 이는 케니가 안을 들여다보기에 충분했다.

소년 유령은 달아오르는 그 얼룩에서 나오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곧 유령은 검게 그을린 어두운 갈색 흙처럼 빛나며 케니를 등지고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전에 했던 것처럼 그 유령은 멀리 떨어진 벽으로 가서 나갈 방법을 찾으려는 것처럼 벽을 만져보았다. 서서히 그 유령은 방 주변을 살펴보고 두 소년은 다시 또 마주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유령의 표정에 어떤 감정도 없었다.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확실히 없었다. 케니는 자신을 불러낸 쪽은 유령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대화가 하고 싶다면 먼저 얘기를 꺼내보기로 했다.

“누구야, 넌?” 케니가 속삭였다.

유령이 머리를 약간 기울였다. 케니는 방금 한 말을 유령이 들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유령은 다른 쪽보다 반대쪽 귀로 더 잘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약간 자세를 고칠 뿐 말이 없었다.

케니가 다시 말을 꺼냈다. “저기, 이름을 말해줄 수 없으면 네 정체는 뭔지 만이라도 얘기해줘.”

유령은 얼룩을 가리켰다. 케니의 눈이 유령의 손짓을 따라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 얼룩이 너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자 유령이 케니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유령은 뒤로 돌아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얼룩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말 못하니?” 케니가 말했다.

유령이 입을 열었다.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유령은 다시 해보았다. 이번에는 겨우 한 소리 하나씩만 나올 뿐이었다. 그 소리는 말하는 법을 잊은 듯 공허하고 무의미했다.

“뭐라고?” 케니가 말했다.

유령이 그 소리를 반복했다.

케니에게 있어 알 수 없는 그 소리, 혹은 그 단어는……에, 아니면 누에…….

유령은 한번, 두 번, 세 번, 소리를 반복했다. 불현 듯 그 단어가 생각이 났다. “아! 노예!” 불쑥 말이 나왔다.

갑자기 튀어나온 그 단어가 유령을 아주 세계 강타한 듯 보였다. 유령은 가장 멀리 있는 벽까지 물러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팔을 들어올렸다.

케니는 뭔가 잘못 말했다고 생각했다. 케니는 사과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앞으로 다가가서는 소년유령을 안심시키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유령은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대신에 뒤로 물러나 얼음이 녹는 것처럼 바닥으로 스며들어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방을 어둡고 텅 비게 만들었다.

\* \* \*

다음날 아침 늦게 잠이 든 케니는 부모님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지 못했다. 케

니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부모님의 언제 퇴근할 지와 어머니 아빠에게 전화하라고 적힌 쪽지를 발견했다.

하지만 전화를 먼저 걸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케니는 엄마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약사였다.

“연구실에서 그 얼룩이 왜 생겼는지 알아냈어.” 약사가 말했다.

“네, 뭐 때문이에요?”

“피야. 사람 피.”

케니는 놀라지 않고 물었다. “오래 된 건가요?”

“그래, 맞아.”

“얼마나 된 거죠?”

“100년도 넘었어.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할 일이야.”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어.”

\* \* \*

아침을 먹고 케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역사 도서관에 갈 거라고 말했다.

윌링해스트가 케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기쁘게 케니를 반겼다. 윌링해스트는 목록에 있는 이름들에 대한 정보가 그다지 많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있다고 정중하게 얘기했다.

케니가 말했다. “100년 이상 된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윌링해스트가 올려보았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그때 사람들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서요.” 케니가 얼버무리며 얘기했다.

윌링해스트가 케니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케니는 자신이 완전히 솔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 남자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잠시 뒤에 윌링해스트가 얘기했다. “내가 조사한 내용을 같이 봤으면 좋겠구나.” 그가 책상 위로 종이를 내밀었다. 이름 옆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었다.

윌리엄 가족	(1636-1743)	경작용으로 토지이용
셸던	(1743-1769)	상인
스틸웰	(1769-1845)	선구상 1789년 집 완공
블레이스텔	(1845-1849)	상인 골드러시로 캘리포니아행
로턴	(1849-1867)	선장
레이크	(1867-1890)	은행원
비키	(1890-1912)	상인
버터	(1912-1929)	변호사
마이어스	(1929-1930)	제빵사
살라자르	(1930-1947)	목수
플러드	(1947-1963)	교수
멜턴	(1963-1987)	수의사

케니가 이름과 정보를 살펴보다 물었다. “혹시 누가 노예였는지도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윌링해스트가 진지한 얼굴로 케니를 보았다. 그리고는 업신여기는 말투로 단어를 내뱉었다. “노예?”

“제 말은, 이 사람들 중 노예를 데리고 있던 사람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노예제가 금지되었을 때도요?” 케니가 물었다.

“로드아일랜드에서 얘기 하는 거지?”

“네.”

윌링해스트가 편히 앉아 말을 시작했다. “1774년 이후로 로드아일랜드엔 노예들이 들어오지 않았어. 1784년에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지. 그 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은 계속 노예였지만 그 때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스물한 살까지만 노예생활을 하면 됐어. 가장 자유민주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지. 물론 결국에는 모든 노예제가 헌법 수정조항으로 금지되었단다.”

“하지만 그 전예요, 노예제가 이 주에서 아주 중요하지 않았나요?” 케니가 전에 읽은 책들을 떠올리며 말했다.

“노예무역 때문에 돈을 번 사람들이 있긴 하지.” 윌링헤스트가 인정했다.

“노예제를 폐지하고 싶었던 사람은 없을까요?” 케니가 말을 이었다.

“역사를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야 항상 있었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선동가 같은 사람들 말이지. 이 문제에 대해 왜 그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는지 물어봐도 되겠니?” 윌링헤스트가 애매하게 말했다.

“그냥요……. 아, 혹시 아이들도 노예가 될 수 있었나요?”

“방금 말한 것 같은데.”

“이 목록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린 노예를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어려울 거다. 더 중요한건 장담컨대 굳이 그럴만한 가치는 없을 거다.”

케니가 그 종이를 다시 훑어봤다. 보물 상자처럼 보였던 종이가 갑자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케니는 그 중 무엇을 조사해야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르게 접근해 보았다. “그러면 살인자는요?” 케니가 말했다.

“살인자?” 윌링헤스트가 말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은 케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누군가 살해된다면 뭐, 신문 같은 데에 나올까요? 제 말은, 그때는 TV나 라디오나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그런 일들이 보도됐나요?”

“네가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게 살해됐을 지도 모르는 노예 때문이었니?”

“그런 것 같아요.”

윌링헤스트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이 보도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왜요?”

윌링헤스트가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거든.”

“어째서요?”

윌링헤스트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애야, 우린 지금 노예 얘기를 하고 있잖니.” 그는 그 한단어로 모든 게 다 설명된다는 듯이 얘기했다. “내 말을 믿어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너라면 여기서 그만 둘 거다.”

\* \* \*

그날 밤 그 소년유령이 나타났을 때 케니가 아직 잠옷으로 갈아입지 않은 채 그 작은방 문 옆에서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부듯가를 들고 해안가까지 오래 수영을 하고 물에서 나오는 수영선수처럼 유령이 빛이 번쩍이는 바닥에서 벗어나 올라올 때 케니는 낮이 나간 채 바라보았다. 유령은 바닥에서 올라와서는 멀리 있는 벽으로 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벽을 살피기 시작했다.

케니가 물었다. “나가는 문을 찾는 거야?” 지난밤처럼 그 소년유령에게 겁을 주고 싶지 않아 부드럽게 말했다. 유령은 멈춰서 뒤로 돌아 케니를 경멸 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벽을 살폈다.

케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령이 방을 돌다가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물론 유령이 케니 쪽으로 왔을 때 잠시 멈추었다. 케니는 누가 봐도 화가 나 있는 유령의 표정 때문에 당황했다. 하지만 잠시 멈춘 동안 케니는 유령의 모습에 대해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왼쪽 뺨에는 상처고 있었고, 케니보다 키는 작지만 나이는 더 많아 보였다.

“내가 지금 여기 산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얼마 전에 이 집으로 이사 왔어.”

그 말을 듣자 그 유령은 눈을 가늘게 뜨며 뒤로 물러났다.

대담해진 케니가 말을 이었다. “너는 노예였지? 내가 어제 너에게 물었을 때 하려던 말이 그거야?”

유령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리고서 “나는……” 하고 입을 뗐지만 말을 끝맺지는 못했다.

“뭐라고?” 케니가 달랬다.

“노예야.”

“네 말은 네가 과거에 노예였다는 거지.”

유령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유령이 아래를 가리켰다.

“피잖아.” 케니가 말했다.

유령이 덧붙였다. “내 피야.”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 아까보다 더 급하게 벽 쪽을 살폈다.

“그럴 필요 없어.” 케니가 얘기했다.

“문이 열려 있잖아. 너도 보이지? 다시 말하면 네가 여기서 나가거나 뭘 하더라도 내가 막진 않을 거란 얘기야.”

유령이 살피는 것을 멈추고는 강한 의심의 눈초리로 케니를 보았다.

하지만 돌아서 문 쪽으로 갔다.

케니는 길을 비켜주며 재촉했다. “어서.”

유령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왜?”

“하면 안 돼.”

“누가 그래?”

“난 노예야.”

“이제 노예는 없어. 그런 건 다 끝났어. 이제 불법이라고.” 케니가 말했다.

유령은 또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유령이란 건 과거에 살았던 사람의 기억일 뿐이야.” 그리고는 다시 벽 쪽으로 다가갔다.

케니는 화제를 바꾸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름이 뭐야?” 하고 물었다.

답이 없었다.

“내 이름은 케니야. 케니 허도프. 네 이름이 정말 알고 싶어.”

유령은 찾던 것을 멈추고 어깨 너머로 보며 물었다. “왜?”

“있잖아…….친구가 되고 싶어서 ……”

“친구.” 유령이 단어를 내뱉듯 말했다.

“정말이야. 날 믿어도 돼. 얼른. 네 이름을 말해줘.”

유령이 잠깐 케니를 바라봤다. “케일럽.” 이름을 말하고는 다시 벽 쪽으로 돌아갔다.

케니는 어떻게 하면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케일럽을 잠시 바라봤다. “케일럽?” 마침내 입을 뗐다.

유령이 뒤를 돌아 얼굴을 마주했다.

“너 정말…… 죽은…… 거야?”

“응.”

“여기? 이 방에서?”

“응.”

“혹시…… 사고였니?”

“아니.”

“누군가…… 너를 죽인거니?”

“응.”

“누가?”

“모르겠어.”

“왜 몰라?”

“자고 있었거든.”

케니는 마른침을 삼켰다. 입이 말랐다. “자고 있었다고?” 겨우 입을 뗐다.

유령이 끄덕였다.

“그 사람이 왜 너를 죽였는지 아니?”

“나를 계속 노예로 부리고 싶어서.”

점점 몰입하며 케니가 말했다. “내게 더 말해줄 수 있어?”

“그 사람들은 흑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야.”

“누군데?”

“사람들.”

“왜?”

“우리가 자유를 원했거든.”

“그리고?”

“난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지. 그랬을 때…… 아마 그때 ……나를 죽인 것



같아.”

“네가 그런 것 ‘같다’고 했잖아. 그 말은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응, 잘 모르겠어.” 케일럽이 다시 벽 쪽으로 돌아갔다.

케니가 말했다.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케일럽이 다시 돌아가 케니를 마주봤다. 믿을 수 없는 것 같았다. “네가?” 케일럽이 말했다.

“진심이야. 도와주고 싶어.”

케일럽이 더 자세히 케니를 뜯어봤다. 그리고는 말했다. “아마도.”

“좋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지만 말해줘. 내가 해볼게. 정말로.”

유령은 케니의 말을 확인하려는 듯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마침내 케일럽이 말했다. “도와줘.”

“계속 말해봐…….”

“날 죽인 사람을 찾는 걸 도와줘.”

케니는 너무 얼떨떨했다. “그건 안 돼.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잖아.” 그 말에 반대했다.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조금 읽어보기는 했지.”

“읽어봤다고.” 케일럽이 깔보듯 말했다.

“혼자 알아봐.” 케일럽이 점점 더 화를 내며 얘기했다. 문을 가리키며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또 벽 쪽으로 돌아가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잠시 뒤 케니가 말했다. “케일럽? 다른 것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

유령이 잠깐 멈추고서 말했다. “방해하지 마.”

케니는 유령이 왜 화가 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 뭔가 더 말을 해주기를 바라며 기다렸다. 유령이 말이 없고, 화가 단단히 났다는 게 확실해지자 케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든 게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 제 4 장

방은 허름하고 지저분했으며, 더운 열기로 가득했다. 케니의 물건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페인트칠된 벽과 채광창조차 없었다. 당황한 케니가 케일럽이 뭔가 알고 있기를 바라면서 작은 방으로 갔다. 하지만 케일럽은 여전히 등을 지고 있었다.

다른 것들도, 바깥쪽까지 바뀌어버렸는지 궁금해 하면서 케니는 창문으로 가 밖을 내려다보았다. 어두운 거리에 몸을 구부린 한 남자가 서 있었고 창문을 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케니는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보기 위해 몸을 슬그머니 앞으로 움직였다.

그 남자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검정 망토 같은 옷을 입고 삼각 모자를 쓰고 있었다. 모자의 챙 때문에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자기를 발견하는 케니를 의식한 듯이 서두르다가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 했다. 남자는 얼른 중심을 잡고는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듯 멀어졌다.

케니는 케일럽과 그 남자, 또 이 방에서 벌어진 일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는 가장 먼저 케일럽에게 얘기하려 했다. 케니는 케일럽과 아직 같은 방에 함께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도 케일럽에게 빠져 있던 것이다. 케니는 혼자 뭔가를 더 찾아보기로 했다.

케니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1층으로 내려와 재빨리 뒷문을 잠그고 앞문으로 뛰어갔다. 남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케니는 트레이버스 스트리트 쪽을 봤다.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 남자와 닮은

사람은 없었다. 스트리트 쪽을 봤다. 어두운 망토를 입은 사람이 모퉁이를 돌아서 가고 있었다. 케니는 남자를 뒤쫓아 가서 모퉁이에 이르렀다. 그 때 남자는 트랜짓 스트리트에 거의 이르렀다.

“저기요!” 케니가 불렀다.

남자는 대답도 없이 가파른 내리막길을 급하게 내려갔다. 케니는 지나다니는 사람들 사이로 그를 뒤쫓아 갔다.

케니는 스트리트와 트랜짓 스트리트가 만나는 모퉁이에서 잠시 멈춰 남자가 사라진 언덕 아래를 내려다봤다. 뭔가 이상했다. 그날 밤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다. 여자들은 긴 치마를 입고 있었고 남자들은 망토나 연미복을 입고 있었다. 모두 다 삼각 모자를 쓰고 있었다.

케니가 하늘을 보았다. 새벽 3시 쯤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밝지는 않았다.

케니는 트랜짓 스트리트 아래로 시선을 돌렸다. 케니가 고속도로가 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는 넓게 탁 트인 프로비던스강이 있었다.

케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전기회사 건물과 남서쪽 하늘을 완전히 덮었던 높은 굴뚝이 사라지고 없었다.

강의 모습을 보니 놀랍게도 범선으로 북적이고 있었다.

케니는 트랜짓 스트리트를 따라 내려가 사우스메인 스트리트를 가로질러 강가로 향했다. 망토를 쓴 환상속의 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케니는 그 대신 자리에 서서 놀라운 광경에 빠져들었다.

나무로 된 부두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크고 작은 배로 가득 찬 풍경이 보였고, 배에 달린 돛대와 기둥은 마치 수많은 호저<sup>1)</sup>들이 잔뜩 화가 나서 가시를 곤두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느슨하게 걸린 돛이 바람에 펄럭거렸다. 케니는 그 모든 삭구<sup>2)</sup>와 돛들을 지지해주는 기다란 밧줄들의 모습이 커다란 거미줄이 하늘에 걸려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 배들 주위로 많은 남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질긴 캔버스 천으로 된 바지와 셔츠를 입고서 짐과 상자와 통을 끌어다 들어 나무나 벽돌, 돌 위에 아무렇게나 놓고 있었다. 사람들은 거의 등을 쓰고 있었다. 말이나 소가 끄는 카트나

1) 호저 : 산미치광이과와 나무타기산미치광이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

2) 삭구 : 돛대를 고정하는 고정 밧줄과 화물 밧줄처럼 움직이는 밧줄

마차를 쓰는 사람도 있었다.

고함소리에 망치질 소리에 노래하는 소리까지 왁자지껄한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있었고, 말이 우는 소리에 채찍질하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 바다 갈매기가 위에서 급 하강하며 끊임없이 우는 소리가 간간이 들렸다.

부둣가에서부터 이어진 넓은 길에는 목재와 벽돌로 된 건물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돌로 된 건물도 있었다. 주택들이 눈에 띄었고 카페나 여관도 있었다. 하지만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훨씬 더 많았다.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해 2층 창문으로 물건들이 옮겨지는 모습이 보였다.

소금, 땀, 물고기에 타르와 말에서 나는 악취로 공기가 가득했다. 어떤 것들은 썩어가고 또 어떤 것들은 살아있기도 했다. 케니의 눈에 전체적인 모습이 혼란스럽게 비춰졌다. 하지만 케니는 그곳에 서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케니는 내게 단호하게 이 이야기를 했다. 케니가 서 있는 프로비던스는 과거의 모습이었다. 케니는 과거를 보고 있었고, 그 과거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케니는 당연히 어안이 병병한 채 흘러 있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과거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사그라지게 되었다. 사람들 사이로 재촉하며 걸어갔지만 케니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궁금했다. 어쨌든 케니는 자신이 21세기에서 왔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케니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는 옷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케니는 맨발이었다. 또 바지와 험렁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손으로 머리를 넘기자 평소보다 더 짧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갑자기 불안해진 케니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고리를 만져보았다. 손가락으로 열쇠를 손에 쥐고서는 자신이 원래 살고 있는 시간과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바닷가를 떠나며 케니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서 시장 건물 중 가장 큰 건물로 향했다.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로, 아래층은 열려 있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스타일로 옷을 입은 남자들이 물건 더미 근처에 서 있었고 서로 거래하며 언쟁을 하다 가끔씩 떠들썩하게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건물 바로 밖에 있는 한 남자가 케니의 시선을 특히 사로잡았다. 그 남자는 나

이가 지긋했고, 소박한 프록코트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머리는 어깨 위로 늘어져 있었다. 그는 다른 키 작은 남자와 열띤 논쟁을 벌이던 중이었다.

케니는 호기심에 다가갔다.

“지난번 전투에서 당신들 싸움에서 싸울 수 있을 만큼 튼튼했던 말ियो.” 키 큰 남자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 말에 다른 남자가 받아쳤다. “개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 생각만 그렇게 밀어붙이면 이 동네 주요 산업들에 다 지장이 있을 거요! 불안하단 말ियो!”

“불안이라니!” 키 큰 남자가 소리쳤다. “노예는 내가 여기에 표시를 새기는 것 만큼이나 확실히 악랄한 존재요!” 그는 코트에서 큰 열쇠를 꺼내 거센 팔놀림으로 건물의 벽돌 벽에 X자를 그었다. “저게 남아있는 한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요. 반드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요.” 그 남자가 말했다. 그 말을 남기고 그 남자는 과거의 케니를 지나쳐 쿵광대며 갔다.

“브라운씨!” 다른 남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 브라운이라는 남자는 이미 가고 없었다.

케니가 보고 있을 때 그 작은 남자는 벽돌에 있는 그 표시를 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뒤로 돌았다.

“거기, 애야!” 남자가 화난 듯 말했다.

“저요?” 케니가 놀라며 답했다.

“그래, 너. 이리 와봐.”

케니는 뭘 해야 될지 몰라 다가갔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쪼가리를 꺼내 케니에게 떠넘겼다.

“이걸 베네핏 스트리트 84번지로 가져다주면 고맙겠구나.” 남자가 딱딱했다. “답장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기다리지 않고 그 남자는 서둘러 사라졌다.

케니는 접힌 쪽지를 보았다. “시그레이브”라는 이름이 휘갈겨 쓰여 있었다. 잠시 생각한 뒤 그 심부름을 해주기로 했다. 케니는 자신이 있는 세계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눈앞의 광경을 보며 무심코 걸으면서 베네핏 스트리트에 이를 때까지 토마스 스트리트로 알고 있는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갔다. 케니는 그곳에서 주소를 살펴 보았다.

집을 발견하고 케니는 멈춰서 손에 쥔 종이를 보았다. 궁금증이 커진 탓이었다. 케니는 보는 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 종이를 펴 아무렇게나 써진 글을 읽었다. 케니는 그 내용을 꽤 잘 기억한다.

W가 이제 나설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 그와 그의 사람.  
그가 올다고 내가 확신하는 이유를 브라운과 그쪽 사람들은  
들으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 밤, 9시, 가스피 스트리트, 계획 세울 것.  
o.

케니는 쪽지에 별다른 정보가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고는 84번지로 가 문을 두드렸다. 하얀 모자를 쓴 젊은 여자가 문을 조금 열고 내다봤다.

“네?” 여자가 물었다.

“시그레이브씨께 온 거예요.” 케니가 말했다. 여자에게서 일에 대한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쪽지를 건넸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젊은 여자는 종이를 받아들고서 문을 닫았다.

그 여자는 분명 케니를 보잘 것 없는 쪽지 전달자이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자 무서운 생각이 더 커졌다. 케니는 진짜 집과 현재와는 영영 가로막혀 버린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케니는 과거에 간혀버린 걸까? 그 생각으로 인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다음 케니는 베네프 스트리트를 따라 달렸다. 셸던 스트리트에서 멈춰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집을 보는 게 두려웠고, 보지 않는 것도 두려웠다. 하지만 눈길을 돌렸을 때 집은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케니는 집이 원래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덧문도 없었다. 역사가 쓰인 명판도 없었다. 그 순간

케니는 21세기가 아니라 훨씬 이전의 집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케니는 여전히 과거에 있던 것이다.

두려움은 점점 커졌고 케니는 급히 길을 건너 평소에 차가 세워져 있는 집 옆으로 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뒷문은 있었다. 케니는 문을 확 잡아 열어 재빨리 계단을 타고 다락으로 올라갔다. 위층에 이르자 숨이 턱 막혀왔다. 그는 역지로 주위를 둘러봤다. 원래 알고 있던 그대로였다. 원래 시간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다.

매우 안심이 되기는 했지만 케니는 과거에 있던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만큼이나 현재로 돌아온 지금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일은 대체 어떻게 일어난 걸까?

생각해볼 수 있는 해답이라고는 케일럽이 몰고 온 과거 그 자체 뿐 아니라 케일럽과 길거리에 있던 그 남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뿐이었다. 케니는 그 유령이 아직 거기 있기를 바라며 작은 방으로 바로 달려갔다고 기억한다. 유령은 가고 없었다.

케니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자 갑자기 피곤해져 옷을 벗어 침대로 갔다. 그리고는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쓰고 눈을 감았다.

케니는 누워서 순간적이지만 압도적인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케니는 현재에 있는 걸까, 아니면 과거에 있는 걸까, 또 아니면 그 둘 다에 있는 걸까?

## 제 5 장

케니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하룻밤 새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다. 너무 많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겪은 일은 모두 꿈이고, 예전에 봤던 모든 기억들이 뒤섞인 것이며, 예전에 읽어본 역사이자 옛날 프로비던스의 모습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케니는 다른 공기 냄새를 맡았고, 두발 아래 다른 땅을 느꼈던 게 분명했다.

그리고서 케니는 케일럽과의 대화를 생각해보았다. 케일럽은 유명이었다. 그때 까지만 해도 그 사실에 대해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자신이 노예였고 살해당했다는 케일럽이 했던 말도 선명했다. 케일럽은 노예였다는 사실과 살해당했다는 사실 사이엔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 마지막엔 케니에게 자신을 죽인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도 했다.

하지만 어떻게 거의 200년 전 살인자를 찾을 수 있을까? 꿈이어야 했다. 케니는 또다시 눈을 감았다. 다시 잠을 자는 편이 훨씬 쉬웠다.

마침내 시계를 보려 몸을 일으켰을 때는 아침 11시 30분이었다. 그 때 2층에 있는 부모님 방에서 전화가 울렸다. 아빠였다.

“케니? 일어나서 전화했어야지.” 아빠가 말했다.

“죄송해요. 방금 일어났어요.”

“방금?”

“네.” 아빠는 안심한 것 같았다. “피곤했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어젯밤에 잤었지?”

“무슨 말씀이세요?”

“계단 올라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소리를 들으셨어요?”

“졸리긴 했는데 내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3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뭘 먹으러 내려왔던 거니?”

케니는 아빠가 변명거리를 얘기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네. 배가 고팠어요.”

“단지 그것뿐이라면 다행이구나. 오늘은 뭘 할 거니?”

“도서관에 가볼까 생각중이에요. 그다음 수영하러 가려고요.”

“재밌겠네. 저녁에 야구 보러 갈래?”

“보스턴 경기에요?”

“아니. 포터킷. 프로비던스 북부에 있는 도시야.”

“어떤 선수가 있는대요?”

“사람들은 포삭스라고 불러. 트리플 A팀이야. 재미있을 거야.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을 거다.”

“네?”

“절대 알 수 없지. 한 선수가 스타가 될 수도 있지. 그러면 나중에 그 선수를 봤다고 자랑할 수도 있잖아.”

“네…….”

“그래. 5시 전에 집에 가마. 뭐 좀 먹고 가자.”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케니가 생각했던 건 야구경기가 아니었다. 미래의 스타 선수도 아니었다. 아빠가 계단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케니가 지난 밤 겪은 일 중 최소한 일부는 꿈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케니는 아빠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하겠다는 생각으로 수화기를 들어 아빠에게 다시 전화하고 싶었다. 그 대신 케니는 일단 몇 가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해보기로 했다.

케니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잠깐 동안 케니는 그냥 서서 쉐던 스트리트

를 위아래로 쪽 봤다. 그러고서 전날 밤 과거 프로비던스에서 거닐었던 길과 같은 길을 따라서 출발했다.

케니는 긴장감과 흥분을 느끼며 천천히 걸어갔다. 눈에 보이는 건 거의 대부분 같았다. 또 대부분은 달랐다.

베네프 스트리트 84번지에서 케니는 쪽지를 전해준 그 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음과 같이 쓰인 명판이 있었다.

필립 시그레이브의 집

1792년 완공

전날 밤에 부딪가를 따라서 갔던 길이 확실히 보이지 않았다. 강은 더 좁았고 상당 부분이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건물 하나가 많이 닳아 있었다. 그 전날 밤에 갔었던 시장이었다. 게다가 거기에 쓰인 명판도 아주 오래 전인 1797년에 다시 지어진 그 건물이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케니가 건물 창문을 들여다보던 와중에 지난밤 논쟁을 벌이다 벽돌에 표시를 새긴 키 큰 남자가 생각이 났다.

그 순간 케니는 만약 자신이 본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면 그 표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케니는 어젯밤에 서 있던 자리를 찾으려 했다. 그리고는 지금의 기억 속에서 전에 봤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려 했다. 처음에 케니는 일단 보면서 벽돌을 찾기 시작하다가 보이지 않자 결국 감으로 찾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났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땅에서 1.5m 정도 되는 높이에 있었고 그리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틀림 없었다. 케니는 벽돌에 새겨진 그 X 표시가 200년 전에 그려지는 장면을 분명히 보았다.

하루 종일 케니는 멍했다. 이해해보려 하면서 전날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되짚어 보았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고, 아빠에게 전화할 수도 없었다.

\* \* \*

“경기 재밌니?”

케니는 아빠에게 그렇다고 답했다. 아빠가 케니를 한 달 전에만 데려왔어도, 또 그게 마이너리그 경기라 하더라도 케니는 열광했을 것이다. 지금은 포터킷 레드삭스와 톨레도 머드헨스의 경기를 보면서 어느 팀이 이기고 있는지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경기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졌다. 마음속에는 또 다른 영원이 자꾸 떠올랐다.

그날 밤 케일럽이 나타났을 때 케니는 다시 또 그 작은 방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케일럽은 처음에는 케니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벽에다 손을 가져다 뒀다.

“뭘 그렇게 계속 찾아?” 케니가 물었다.

“나가는 문.” 케일럽이 말했다.

“그냥 이 문으로 걸어갈 수 없는 거야?”

처음에 케일럽은 케니를 그냥 바라봤다. 그리고는 당연한 것을 계속 설명하는데 지친 선생님처럼 말을 꺼냈다. “사람이 부자연스럽거나 부당하게 죽게 되면 그 사람의 기억은 그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게 돼.”

“그게 너인 거야? 기억?”

“그래.”

“그리고 넌 그렇게 남아있는거야, 영원히?”

“일부 기억들은 희미해지겠지. 또 어떤 기억들은 잊혀 지기도 하고. 쓰러린 기억들은 바뀌어버린 과거를 찾아 유령이 되지.”

“기억이 바뀌기도 해?”

케일럽이 케니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궁금한 게 뭐야?” 케일럽이 말했다.

“말했잖아. 널 돕고 싶다고.”

유령이 비웃었다. “말은 그렇게 하겠지.”

“진심이야!” 케니가 받아쳤다.

케일럽은 약간 누그러진 것 같았다. “부자연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상황이 바뀌면 기억도 바뀔 수 있어.”

케니가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살해당했어.” 케일럽이 화를 내며 얘기했다. “여기서 난 그 기억 안에 갇힌 포로야.”

“살해당했다고, 네 말은…….”

케니가 말을 이었다. “누가 널 죽였는지 알 수 있다면 그걸 막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난 이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케니가 끄덕였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구나. 일단 널 죽인 사람을 찾는 것. 그다음 그 사람이 널 죽이지 못하도록 막는 것.” 케니가 말했다.

케니가 끄덕였다. “그 두 가지에서 벗어나야 해.” 말을 하고 다시 벽으로 가 살피기 시작했다.

케니가 유령의 등에 대고 말했다. “네 말은 지금 네가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가 죽었을 때. 맞지? 오래 전에.”

“당연하지.”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케일럽이 말했다.

잠시 뒤 케니가 말했다. “어젯밤에 내가 너를 만나고 나서 밖에 나갔어. 프로비던스가 맞기는 했는데 아주 오래 전 프로비던스였어. 아무래도 네가 살았던 때였던 것 같아.”

케일럽은 벽을 찾는 것을 멈추고 케니를 바라봤다. 케니는 그 유령의 입에 웃음기가 스친 걸 기억한다. “정말이야?” 케일럽이 말했다.

케니가 끄덕였다. “어떤 남자가 밖에 서서 여기를 올려보기에 내가 나가본 것 뿐이었어.”

“이 집을?”

케니가 호소하듯 말했다. “널 믿어줬으면 좋겠어. 어떤 남자가 내방 창문을 봤다니까. 너랑 얘기하고 나서 바로 그 남자를 봤어.”

“어떻게 생겼는데?”

“모르겠어. 그런데 뭔가 수상해서 따라겠지. 따라잡을 수는 없었지만.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케니가 물었다.

케일럽은 전보다 약간 키가 큰 것 같았다. “네가 날 데려가줘야 해.” 케일럽이 말했다.

케니가 재빨리 말했다. “내가 만약 널 데려간다면 내가 뭘 해야 할 지 얘기해

줘야 해. 다시 말해서 난 그 때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이젠 놀랍지도 않네.” 케일럽이 빈정대며 말했다.

“뭐가?”

“백인들 중에 흑인의 기억에 대해 신경 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케니는 기분이 상했다. “다른 걸 물어볼 걸 그랬네. 다른 남자도 있었어. 시장 근처였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쪽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어.”

“그 남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케니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

“에섹 옴스비야!” 케일럽이 외쳤다. “노예 상인이야. 누구한테 쪽지를 전달해달라고 했어?”

“시그레이브라는 사람.”

“그 사람도 노예 상인이야.”

“사실 쪽지를 전달하기 전에 읽어봤어.” 약간 난처해하며 케니가 말했다.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케니는 기억나는 대로 내용을 얘기했다. “네가 살해당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야?” 케니가 물었다.

“그 사람들은 흑인 구역에서 폭동을 계획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집 밖에서 본 그 남자도 가담해 있을 거야.”

“확실해?”

“옴스비가 거기 있었고 쪽지 내용이 그렇다면, 또다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벌어져?” 케니가 말했다.

“그 사람들은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선 나를 죽이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가 왜 알아야 되는데? 너랑은 상관없지 않아?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 케일럽은 케니가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말했다.

“케일럽. 난 이곳으로 이사 온 지도 어마 되지 않았어. 난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케니가 받아쳤다.

“너는 과거로 갔었잖아.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던 내가 죽기 전 과거로.” 케일

립이 다시 차근차근 말했다.

“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 케니가 말했다.

“넌 누군가의 기억으로 들어간 거야.”

“누구의 기억?”

“아마 나겠지.” 케일립이 말했다.

“아니면 네가 본 그 사람의 기억일 수도 있고.”

케니는 그 생각으로 인해 불안해져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다른 사람 누구?”

“나도 모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 번 더 가봐.”

하지만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상황을 통제한다는 생각이 너무 두려웠다. 케니는 자기 방 창문을 봤던 그 남자를 떠올렸다. 따라가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가지 않을래. 한번이면 족해.” 케니가 긴장한 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갈 수만 있다면 일어난 일을 막아볼 수 있을 거야. 그 일을 막으면 난 자유가 되는 거야! 모르겠어? 나 혼자서는 이 방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난 죽어서도 노예야. 내가 살던 시절로 다시 누군가 날 데려가줘야 해. 날 돕고 싶다고 한 건 너잖아. 그냥 해본 말인 거야?”

케니는 위험하다고 느꼈다. 만약 다시 현재로 돌아오지 못하면 어찌지? 케일립의 케니가 눈을 피하면서 말했다. “내일 결정할게.”

케일립이 케니를 바라봤다. 케니는 숨김없는 경멸의 눈빛을 느꼈다. “그래. 많은 용기가 필요할거야.” 유령이 말했다.

\* \* \*

아침이 밝아올 때 쯤 케니는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케일립이 한 말이 두렵게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케일립은 자기를 도와달라며 케니가 한 번 더 과거로 가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직 그게 가능한지조차 확신할 수가 없었다.

케니는 부모님께 얘기해 볼까하고 다시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케니는 이 일에 관해서는 부모님을 완전히 빼놓고 생각했다. 부모님이 바빠서가 아니었다. 부모님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케일럽과 함께 가서 얘기를 할까? 하지만 화가 많이 난 것 같았는데……. 케일럽이 부모님 만나는 걸 싫어하면 어찌지? 아니면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부모님이 케일럽의 심기를 건들어서 영영 쫓아내 버리면 어찌지? 아니면 도와주지 못하도록 케니와 케일럽을 떨어뜨려놓으면 어찌지? 그런 생각이 들자 케니는 그 가만히 있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 \* \*

“네가 죽은 날짜를 말해줄 수 있어?” 그날 밤 유령이 나타났을 때 케니가 물었다.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케니가 말했다.

“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했지? 아마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거야. 내 말은, 그 기록을 보면 누가 널 죽였는지 알 수도 있다는 거야.” 케니가 대답했다.

“그럴 리 없을 걸.” 케일럽이 말했다.

“해볼 만하지 않아?”

“널 도와주는 걸 피하고 있구나, 너.” 유령이 날카롭게 말했다.

“아냐, 정말…….” 케니는 사실이란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창피했다.

“백인 소년이 한 흑인 소년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지. 흑인 소년은 받아들였어. 근데 그 백인 소년이 두려워진 거야. 넌 내가 한 말을 믿지 않았지?” 케일럽이 비꼬며 물었다.

케니는 죄책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난 정말 널 돕고 싶어. 단지……단지 그냥 위험해……보여서 그래.” 케니가 말했다.

“위험하긴 하지.”

“어쩌면, 어쩌면 혹시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도 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더 안전할거야.”

“누구한테?” 케일럽이 경멸 하는 듯한 목소리를 굳이 숨기지 않고 케니가 비난 하는 자신의 눈빛을 피하도록 하며 말했다. 하지만 잠시 뒤 말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날은 1800년 8월 17일이야.”

“네가 죽은 날이 그 날이야?”

“모르겠어. 내가 죽은 날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 케일럽이 답했다.

“왜?”

“노예는 시간도 가질 수 없거든. 시간조차도.” 케일럽이 케니에게 다시금 알려 주었다.

“1800년 8월. 내일 뭘 좀 확인해 봐야겠다.” 케니가 말했다.

“그 때 마음을 정할거야?”

“약속할게.” 케니가 말했다.

케니가 일어서며 말했다. “백인들이 약속하는 건 이미 많이 봤어.”

“케일럽, 난 달라.” 케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두고 보면 알겠지.” 케일럽이 돌아갔다.

\* \* \*

역사 도서관에 있는 신문 자료실은 꽤 컸는데, 높고 어두운 천장에는 선풍기가 달려 있었다. 선풍기는 후덥지근하고 더운 공기를 가르며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다.

“뭘 도와줄까?” 책상 뒤에 있는 젊은 사서가 물었다.

케니가 설명했다. “1800년 8월 쯤 나왔던 프로비던스 신문 기사를 보고 싶어요.”

“원본은 보여줄 수는 없어. 그래도 마이크로필름<sup>3)</sup>에 복사해줄 수는 있는데. 필요하니?”

“네, 고맙습니다.” 케니가 말했다. 예전 캘리포니아에 살 때 학교 숙제로 마이

3) 마이크로필름 : 서적이거나 문헌 등을 축소하여 보존하기 위한 35mm필름으로 불연성 재질로 되어 있음. 내용을 확대해서 읽기 위한 기계는 마이크로리더(micro reader)라고 함.



크로필름을 써본 적이 있었다.

사서는 케니를 마이크로필름을 읽어 들이는 기계들이 들어선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줄지어 선 기계들은 커다란 컴퓨터 화면처럼 보였다. 그 곳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여기 앉아도 돼.” 말을 하고서는 방을 나갔다. 잠시 뒤 사서는 필름 한 꾸러미를 들고 와서는 기계에 필름을 놓았다.

케니가 화면에서 본 기사는 단이 좁고,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헤드라인과 사진이 없었다. 기사를 읽으려 몸을 가까이 숙여야 했다.

“이 손잡이를 돌리면 돼. 이걸로 페이지를 넘겨. 이쪽에 날짜가 적혀 있지.” 사서가 화면의 옆쪽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물어볼 게 있거나 다 하면 불러.”

케니가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배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중 프랑스에서 있었던 혁명에 대한 기사 하나를 찾았다. 토마스 제퍼슨과 존 애덤스가 출마했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사도 있었다.

하지만 케니는 첫 장부터 케일럽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망 기사가 있는 신문 뒷부분을 읽는데 더 오랫동안 읽어보았다.

케니는 1800년 8월 27일 발행된 신문에서 찾고 있던 기사를 발견했다. 그 기사는 당밀 선적 광고와 운하 제안에 대한 기사 사이에 끼어 있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 의문의 죽음

다니엘 스틸웰의 16살 노예 케일럽이 8월 18일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소년은 문이 잠긴 자신의 방에서 발견되었다. 당국은 이 죽음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하는 한 편,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정황을 고려했을 때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예주인 스틸웰은 집을 비우고 있었으며,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원하는 건 찾았니?” 케니가 필름을 반납하자 사서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케니가 답했다.

사서가 박스를 가져가며 웃었다. “다음번에 오면 행정실에 들러서 허락 먼저 받아야 해. 그냥 형식적인 거야.”

“허락은 받았어요. 윌링헤스트씨가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여기 신입이라. 아직 안 만난 줄 알았어.”

“아, 네. 고맙습니다.”

\* \* \*

케니는 윌링헤스트 얘기가 나오자 그간 알아낸 것에 대해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예전처럼 윌링헤스트는 그림자가 엇갈린 채 드리워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앉아도 될지 묻지도 않고 케니가 의자에 앉았다.

윌링헤스트가 올려다보고는 말했다. “뭔가를 찾은 모양이구나.”

“어떻게 아셨어요?” 케니가 놀라며 말했다.

“얼굴이 복잡해보여서.”

케니가 말했다. “전에 옛날 신문에서 케일럽의 죽음에 대해 뭔가 새로운 걸 알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케일럽?” 윌링헤스트가 약간 놀라며 말했다.

케니는 케일럽과 만난 것에 대해 윌링헤스트에게 아직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얘기하려 하지도 않았다. “우리 집에서 죽은 노예의 이름이에요. 제가 신문에서 이걸 찾았어요.” 케니가 말했다.

“역사 연구를 하다보면 행운을 얻기도 하지.” 윌링헤스트가 무미건조하게 얘기했다. “또 얘기해보렴, 뭘 찾았니?”

“이 케일럽이라는 노예가 우리 집에서 아마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그래? 안 됐구나!”

케니가 말을 이었다. “사람들도 그걸 알았어요. 케니가 방에서 죽어 있었거든요. 또 방은 잠겨 있었고. 게다가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그래…….” 윌링헤스트가 말했다. 흥미로움으로 반짝이는 그의 눈은 계속 케

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니가 물었다.

“이렇게 멀리까지 오기로 결심했으니 아마 더 멀리 가 봐야 하지 않을까 싶구나. 어린 아이들이 미스터리한 것들을 좋아한다더구나.” 윌링헤스트가 얼굴에 얇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케니는 뭘 해야 할 지 얼마나 말해야 할지 몰라 잠시 조용히 앉아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다. 케니가 고개를 들었을 때 윌링헤스트는 계속해서 케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야겠어요.” 케니가 일어서며 말했다. 윌링헤스트는 편히 기대앉았다. 케니는 윌링헤스트가 했던 말이 아직 선하다. “다시 만나기를 기대할게.”

## 제 6 장

그날 밤 케일럽이 다시 찾아왔을 때에는 바닥에서 꽤 손쉽게 나왔다. “결정했어?” 케일럽이 따지듯 물었다.

케니는 그 질문에 살짝 주춤했다. “있잖아. 네가 나한테 말한 그 날짜가 네가 살아있을 때 기억나는 마지막 날짜야?”

“응?”

“옛날 신문에서 찾아봤어. 역사 도서관에서. 1800년 8월 18일 여기 이 방에서 낄견됐지. 신문기사에서는 네가 자살했다고 나와 있었어.” 반응을 보고 싶어 케일럽을 유심히 바라봤다.

“그건 거짓말이야!” 케일럽이 소리쳤다.

“기사에서는 문이, 네 방문이 잠겨 안에서 잠겨 있다고 했어.”

“난 살해당했다고!” 케일럽이 강하게 얘기했다.

“그럼 문은 어떻게 된 거야?”

“문 그딴 건 신경 안 써.” 케일럽이 말했다. “그럼 내 등에 있는 피는 어떻게 설명할건데?” 케일럽이 뒤로 돌아 케니에게 얼룩을 다시 보여주었다. “설마 나 혼자서 여기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케니도 그게 어려운 일이란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내가 자살했다고 얘기들 하겠지. 노예가, 그것도 비참한 흑인 노예가 자살했다고 발표하는 편이 죄를 자백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흑인 말고 또 누가 신경 쓰겠어? 내가 죽어서 우리 흑인 형제자매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으

면 됐지.”

“근데 정말로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케니가 말했다.

케일럽이 짜증난다는 손짓으로 케니의 질문을 무시했다.

“어쨌든 한 가지 더 있어. 네가 노예였다면 네 주인은?”

“다니엘 스틸웰이야.”

“그 사람은 어디 있었어?”

“가족이 다 함께 뉴포트에 가 있었지.”

“너는 왜 안 데려간 거야?”

“난 집을 봐야 했거든.”

“그럼 넌 집에 혼자 있었겠네.”

“그 질문들 좀! 넌 날 안 믿을 거지?” 케일럽이 폭발했다.

“넌 날 믿어?” 케니가 받아쳤다.

케일럽이 등을 돌리며 거칠게 말했다. “아니! 그날 잠을 자지 말고 있으라고 했던 건 스틸웰이었어. 알다시피 주인 방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는 다시 케니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날 믿어줘. 누가 날 죽였는지 알아내면 네 모든 질문에 답해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거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해는 해. 하지만…….”

케일럽이 다가섰다. “아마 너는 내 죽음에 대해 상관해야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 나는 물론 이유가 있지. 자, 이제 날 도울 거야 말거야?”

케니가 케일럽을 봤다. 얼굴엔 사나울 정도로 필사적인 분노 같은 뭔가가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케일럽의 표정이 바뀌었다. “내가 묻고 싶은 건 네가 날 믿는 지야. 난 평생 노예였어.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내 기억 안에서 난 여전히 노예야. 넌 그걸 바꿀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부탁할게. 기회가 왔을 때 도와줘.”

케일럽의 말에서 느껴지는 고통 때문에 케니는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 없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처럼, 케니는 “도와줄게.” 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케일럽은 심호흡을 하고 어깨를 폈다. “손 좀 쥐 봐.” 그가 말했다.

케니가 잠깐 망설이다 손을 뻗었다. 케니는 손을 마주했던 그 기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케니는 보았다. 허공에 손가락을 쥔 것 이상의 다른 느낌은 없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그 둘의 손이, 손의 피와 살이 이어질 때까지 케일럽은 점점 무게와 형태와 온기를 띠게 되었다.

“이제 내가 이 방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줘.” 케일럽이 말했다.

케니가 문을 나섰다. 문지방을 지나자마자 케일럽은 손을 놓고 다시 또 옛날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다락방 한가운데로 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면서 공기를 확인하려는 듯이 팔과 손을 움직였다.

케니는 얼굴에 있던 상처와 마찬가지로 등에 있던 얼룩이 사라진 것을 보았다.

케일럽이 계단 제일 위쪽으로 갔다. 거기서 잠시 멈췄다. “거리를 걸을 때 너보다 한 발짝 뒤에 있을게.”

“난 같이 걷는 게 좋은데.” 케니가 말했다.

케일럽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이건 네 기억이 아니야. 내 기억이지. 명심해. 넌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해.”

케니는 반대하려 했지만 케일럽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고리를 만져보았다.

케일럽이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 \* \*

밖은 어두웠지만 셸던 스트리트는 밝았고 공기는 후덥지근했다. 곧 케니의 등과 팔 아래로 땀이 흘렀다. 케니의 옷은 무겁고 두터워 전혀 쓸모가 없었다.

베네핏 스트리트와 메인 스트리트로 발길을 돌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았고, 멈춰 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케니는 사람들의 모습에 한눈이 팔렸지만 한 걸음 뒤에서 걸던 케일럽이 그를 재촉했다.

부듯가는 케니가 전에 봤던 모습과는 많이 바뀌어있었다. 어둡고 무거운 열기 아래 모든 것은 고요했다. 불어난 강물 때문에 강에서 배가 출렁대면서 삐걱거리

고 킁킁거렸다. 돛이 축 늘어져 걸려있었다. 일꾼들은 셔츠를 벗고 시원한 바람을 찾아 빈둥거리고 있었다. 케니는 담배 파이프의 검게 그을린 불씨가 고양이 눈처럼 빛난다고 생각했다. 갈매기들은 조용했다.

케일럽이 공기 중에 감도는 긴장감을 느끼고서는 멈춰 섰다.

“왜 그래?” 케니가 물었다.

“아냐, 얼른 가자. 늦으면 안 돼.” 케일럽이 얼버무리며 말했다.

부드러가 너머로 불 켜진 낮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

“술을 파는 여관들이야. 저리로 가야 해.” 케일럽이 말했다. 케일럽은 배가 불타는 모습이 그려진 여관간판을 가리켰다. “불타는 배야.”

케니는 로드아일랜드에 대해 읽었던 책이 기억났다. “개스포호야.” 케니가 말했다. 케일럽이 끄덕였다. 밖에서는 남자와 소년들까지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며 빈둥대고 있었다.

케니와 케일럽이 다가서자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케니는 불안해하며 재빨리 케일럽을 훑어봤다. 하지만 케일럽의 얼굴에선 어떤 생각도 읽을 수가 없었다. 케일럽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쪽이야.”

떠다니는 퀴퀴한 담배 연기와 악취가 심한 공기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남자들이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카드게임을 하고 얘기하는 동안, 번들거리는 얼굴이 촛불에 비쳐 빛나고 있었다. 왈카지껄한 목소리 때문에 얘기가 잘 들리지 않았다.

문 쪽에서 케니와 케일럽은 어두운 불빛에 적응하려 잠깐 서 있었다. “구석으로. 얼른 가.” 케일럽이 속삭였다.

케니가 벽을 등지고 입구에서 떨어진 투박한 긴 의자로 살금살금 갔다. 둘은 거기에 앉았다.

케일럽이 케니의 귀 쪽으로 몸을 숙여 말했다. “저기 제일 구석을 봐.”

테이블에 세 남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 중 한명이 케일럽이 에섹 움스비라고 했던 쪽지 심부름을 시킨 남자라는 것을 알아봤다.

“같이 있는 사람이 시그레이브야.” 케일럽이 말했다.

케니가 물었다. “그럼 또 한 명은 누구야?”

“아리엘 피케. 저 사람들 모두 노예 상인이야. 흑인 거래상이지.”

케니가 그들을 살펴봤다. 움스비와 가장 가까이 있던 그 남자는 금발에 깔끔하게 면도가 되어 있었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에 레이스가 달린 파란 코트를 입고 있었다. 또 다른 남자는 화려하게 옷을 입지는 않았다.

케일럽이 말을 이었다.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전에 직접 본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 케니가 물었다. 이 모든 것은 케니 자신이 아닌 케일럽의 삶이었다.

케일럽이 고개를 까닥했다. “내가 전달한 그 쪽지 때문이야.”

케니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케일럽이 그의 발을 푹 찼었다. “어서, 뭔가 알아내려면 가까이 가 봐야지.” 케일럽이 속삭였다.

케니가 마지못해 일어나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들의 대화를 잘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가갔다. 그 쪽으로 다가가자 대화를 엿들 수 있었다.

“그 남자애는 그냥 지나가버린 애야.” 한 남자가 말했다.

“아냐, 또 올 거야. 약속했어.” 움스비가 말했다.

“계획이라도 갖고 왔으면 좋겠네.” 또 다른 남자가 말했다.

케니가 숨을 만한 장소로 반쯤 열린 작고 어두운 방을 찾아냈다. 케니가 어떨 것 같으냐는 표정을 짓자 케니가 고개를 끄덕였고, 케니가 문 뒤로 숨어들어갔다. 케일럽이 따라갔다.

케니는 그 녹녹한 곳이 뭐 하는 곳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여기가 뭐하는 데야?” 케니가 속삭였다.

“우리야.”

“무슨 우리?”

“노예 우리.” 케일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뒤쪽에 다른 문이 또 있을 거야. 나중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넌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어. 내가 가서 찾아볼게.”

케니는 살짝 열린 문 옆에서 무릎을 꿇었다. 앞으로 몸을 기울이자 테이블에 있던 남자가 보였다.

“근데 그 소문은 사실이야?” 한 남자가 물었다.

“사실이지.” 움스비가 말했다. “브라운 쪽에서는 다음 주에 의회에 탄원서를



넣을 거야. 노예매매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거야.”

“우린 다 망할 거야!”

그들은 관세사와 의회, 법안 통과, 법 위반 뿐 아니라 케니가 전혀 모르는 남자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케일럽이 돌아와 케니에게 물었다. “무슨 얘기 중이었어?”

케일럽이 간략히 전해 듣고는 말했다. “노예 매매를 계속 하자는 거구나.”

케니가 말했다. “금지된 건 줄 알았는데.”

케일럽이 코웃음을 쳤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옴스비가 하는 말이 들렸다. “그가 왔어.” 세 남자가 의자를 끌어서 발길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새로 도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며 케니가 앞으로 더 가서 훑쳐봤다. 그는 다름 아닌 파든 윌링해스트였다.

\* \* \*

케니의 심장이 요동쳤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자 케니는 뛰쳐나가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다. 케니가 말하기로는 바로 문에서 등을 돌렸지만 케일럽이 어깨를 짊 붙잡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 케일럽의 손은 안심시킨다기보다는 더 큰 두려움만 가져올 뿐이었다. 벌어지는 일에 대해 케니 자신은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안녕하세요.” 윌링해스트가 익숙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앉으세요.”

남자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옴스비,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죠.” 윌링해스트가 말을 이었다.

“브라운과 탄원서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옴스비가 말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윌링해스트가 말했다. “여러분, 브라운이나 그쪽 사람들에게 얘기해봤자 좋을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정에 대한 의지도 없어요. 우리는 일단 사람들에게서 흑인 무역을 중단하면 우리 주에 큰 손해가 생길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 브라운과 그쪽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건 흑인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흑인들만 조용하게 만들 수 있다면 브라운과 그쪽 사람들까지도 물러설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폭제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돼요.

밖에 그 남자와 소년들이 앉아 있는 걸 보셨겠죠. 거기 앉아 있으라고 일부러 내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에서 일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면 분명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왜겠어요. 그 사람들은 밥줄이 끊기겠죠.”

윌링헤스트가 말을 이었다. “이 사람들이 올니레인까지 밀고 가서 흑인 매매가 계속되길 바란다는 우리 의견을 표현하기만 한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일이 풀릴 거요. 여기서 일이란 건 일반 대중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밀고 가게 되면, 흑인들 스스로도 일을 좀만 더 추진했다가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가 하는 말이에요.”

최대한 집중하고 있었던 케니가 케일립 쪽으로 몸을 틀었다.

“케일립?” 케니는 가능한 용기 내어 목소리를 높였다. 대답이 없었다. 케니는 일어나 어둠 속을 훑쳐봤다. “케일립!” 또 다시 불렀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놀란 케니가 문에서 떨어져 방의 뒷문을 찾을 때까지 더듬어 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케니가 밖을 내다 봤다. 사람은 없었다.

뭔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 케니가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몰라 다시 그 우리로 쓰였던 방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 곳에서 여관을 몰래 들여다보았다.

그 세 남자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문으로 가고 있었다. 하지만 윌링헤스트는 테이블에 남아 있었다. 그는 케니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케니도 똑같이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윌링헤스트는 자리를 내주며 빈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그 순간 케니는 재빨리 움직여 미친 듯이 뒷문을 찾았지만 닫혀있을 뿐이었다. 케니는 밀어서 열어보려 했다. 열리지 않았다. 다시 안쪽 문으로 가보았다. 이제

문은 열렸지만 윌링헤스트가 길을 막고 섰다.

“여기를 나갈 순 없어. 또,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방을 나섰다.

케니는 어떻게 할지 몰라 따라나섰다. 그 순간 한쪽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뒤에서 케니를 잡아당겼다. 한 손이 케니의 입을 막아 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놈 주머니.” 윌링헤스트가 소리치는 게 들렸다. 남자가 케니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남자가 곧 케니의 다저스 열쇠고리를 찾아 테이블 위에 던져놓았다. 윌링헤스트가 열쇠고리를 낚아채 바라봤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케니를 붙잡고 있는 남자에게 몸을 돌렸다. “풀어줘.” 그가 명령했다. 남자는 물러났다.

“걱정하지마라. 해치진 않을게.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 네 안전을 위해서는 나랑 함께 있어야 한다. 대화를 하자꾸나.” 윌링헤스트가 또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했다.

케니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윌링헤스트를 따라 여관을 나오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제 서야 그 사람이 다리를 절뚝거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윌링헤스트는 부두 기둥에 부딪혀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물가로 데려갔다. 그는 그곳에 멈춰 뒤를 돌아 만족스러운 얼굴로 케니를 바라봤다.

케니는 무슨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리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예요?” 케니가 말했다.

“네 노예 친구와 마찬가지로 네가 살던 시대에서 난 기억이야. 하지만 여기서 나는 그 아이와 마찬가지로 난 진짜지. 또 내 일은 흑인을 거래하는 일이야. 아프리카에서 사와서 쿠바나 캐롤라이나에 데려다 파는 거지. 돈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이 일을 계속 할 생각이야.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도 있지.” 윌링헤스트가 편하게 얘기했다.

“무슨 일이에요?”

윌링헤스트가 아직 이라는 듯 손을 들었다. “때가 올 거야.”

“당신은 처음부터 케일럽에 대해 알고 있었어, 내 말이 맞죠?” 케니가 말했다.

“맞아.”

“케일럽은 어디 있어요?”

“분명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막으려 하고 있겠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윌링해스트가 온화하게 웃어보였다. “질문이 너무 많구나! 내가 친구에게 하는 얘기 들었지.”

“케일럽도 당신네 계획에 대해 알고 있어요?”

윌링해스트는 고개를 저었다. “대충만. 알고 있었다면 여관에는 오지 않았을 거야. 아마 내 계획을 듣고서는 도망갔을 거야.” 그가 웃으며 덧붙였다. “지금 개는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해주고 있어.”

“그게 뭔데요?”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이 일에 끼고 싶지 않은데요.” 케니가 말했다.

윌링해스트가 웃어보였다. “애야, 넌 이미 함께 하고 있어.”

케니가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말했다. “다시 돌아갈래요.”

“다시? 어디로?” 윌링해스트가 말했다.

“내가 살던 때로요.”

대답 대신 윌링해스트가 주머니에 손을 뻗어 케니의 열쇠고리를 들어보였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싸구려 열쇠고리가 보석처럼 빛났다. “내가 이걸 갖고 있는 한 넌 여기 있게 될 거야.” 그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케니가 외쳤다.

“케니 허도프, 내 말 잘 들어. 네 모습이 변한다거나, 혹은 다친다거나, 갖고 다니던 걸 잃어버린다면 넌 지금과는 다른 뭔가가 될 거야. 뭔가 달라지겠지. 그러면 넌 내가 살던 때와는 단절되는 거라고. 넌 유명이 되고, 이 시대에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내 기억을 따라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열쇠고리를 돌려줄게.

그래야지만 네가 사는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진 안 되지.” 윌링해스트가 열쇠고리를 조심스럽게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말문이 막힌 케니는 같은 말만 물을 수밖에 없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윌링해스트가 무덤덤하게 웃으며 말했다. “곧.”

“곧…….” 그 말을 남기고 케니 옆을 스쳐 지나갔다.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케니가 그의 뒤에 대고 소리쳤다.

대답 대신 그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케니는 마법에 걸린 것 같았다. 그 즉시 케니는 베네프 스트리트 쪽으로 달려갔다. 거기부터 또 자신의 집이 있는 셸던 스트리트로 내달렸다. 아직 희망을 가지고 뒷문으로 향해 달려가서는 다락방까지 쿵쾅대며 뛰어갔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케니가 아직 과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음울한 방뿐이었다.

케니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모습으로 가장 위쪽 계단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리해보려 했다. 알 수 있는 거라고는 케니 자신이 1800년 8월 17일 케일럽과 윌링해스트의 맞붙은 기억 사이에 끼어있다는 것뿐이었다. 그 둘은 케니의 도움을 받아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과거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다.

케니는 케일럽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유를 위해 상황을 바꾸는 것이었다. 윌링해스트가 자신에게 원하는 건 과거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케니는 자신이 원하던 바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심도 없었다. 케일럽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케일럽은 케니를 버렸고 항상 모든 것을 의심하고 미심쩍어 했다. 둘은 왜 친구가 될 수 없는 걸까? 케일럽에게 나쁘게 대한 건 케니가 아니었다. 어째서 케일럽은 계속 그런 제안들을 했던 걸까?

윌링해스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케니는 그를 싫어했고, 그도 역시 그렇고 있었다. 케니가 여기에 갇혀 미래에서 온 유령이 될 거라는 윌링해스트의 말이 케니를 겁먹게 만들었다. 하지만 윌링해스트는 왜 그때 케니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케니는 다시 처음부터 떠올려봤다. 케니가 이미 이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때까지 케니는 자신이 케일럽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다.

케니는 그제야 윌링해스트가 원하던 것을 이미 해주고 있었고, 전에 했던 일들이 모두 자신이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회상한다. 아마 그가 케일럽을 빠뜨릴 함정을 만든 것 같았다. 케니는 일어섰다. 어서 케일럽을 찾아 알고 있는 것을 말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결심을 하자마자 케니는 케일럽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 역

시 깨달았다.

케니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여관에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되짚어봤다. 추측할 수 있는 거라곤 케니가 윌링해스트와 세 남자의 대화에 집중하는 동안 케일립이 뭔가 중요한 것을 엿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케니는 들은 것을 다시 정리해보려 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생각을 정리했을 때 케니가 알아낸 한 가지 단서는 올니레인이라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케니는 윌링해스트의 경고를 떠올렸다. 뭔가 잘못 하고 있는 거라면 어찌지? 그렇다면 자신이 살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지도 모른다. 혹은 어쩌면 케일립에게 돌아가는 게 바로 윌링해스트가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 갑자기 자신이 떨고 있다는 걸 발견한 케니가 스스로에게 소리 내어 말했다. “어기 오면 안 됐다고!”

하지만 케니는 케일립을 찾아 경고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야 했다.

\* \* \*

케니는 거리로 돌아왔다. 처음으로 옆을 스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랜턴을 든 남자였다. 케니는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 아저씨. 올니레인이 어딘지 아세요?”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멈춰 서서 케니의 얼굴을 살펴보려 랜턴을 들었다. “거긴 왜 가려는 하는 거니?” 남자가 물었다.

“누굴 좀 찾고 있어요.”

남자가 계속해서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한 번 만요, 급해서 그래요.” 케니가 부탁했다.

남자가 돌면서 말했다. “저 거리야.” 남자가 베네프 스트리트를 가리켰다. “왼쪽으로 돌아 그리고 끝까지 가. 2미터정도 가면 돼. 조금 더 가서 오르막길을 오르면 거기가 올니레인이야. 하지만 거기선 얼굴을 보여서는 안 돼.” 남자는 무섭게 속삭이며 말을 마쳤다.

“왜요?”

그 남자는 엇듣는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았다. “뱃사람들이 그리로 간다고 들었어. 그 계획에 낄 게 아니라면, 너 같은 애들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 피하는 게 좋을 거다.” 남자는 서둘러 사라졌다.

케니는 남자가 가는 걸 봤다. 쫓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털어놓을까 생각도 해 봤다. 하지만 곧 케니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거란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도.

케니는 케일럽을 찾아 길을 나섰다.

## 제 7 장

올니레인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어둠 속에서 보이는 거라고는 작은 집들이 언덕 위에 일렬종대로 늘어서 있다는 모습뿐이었다. 너무 어두워서 집이 얼마나 되는지 셀 수도 없었다. 알 수 있는 거라곤 작은 집 뿐이라는 사실과 베네프 스트리트에 있는 케니 자신의 집과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내려간 서터 틈 사이로 간간이 촛불 불빛이 어슴푸레하게 보였다. 보면 볼수록 사람들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케니는 저 멀리 남쪽에서 들려오는 천둥소리에 뒤돌아 봤다. 덥고 후덥지근한 공기가 더욱 짙어진 것 같았다. 오르막길을 바라보자 더위는 물론이고 긴장감 때문에 땀이 흘렀다.

“거기 누구야?” 목소리가 들렸다.

놀란 케니가 누구인지 보기위해 어둠 속에서 몰래 훑쳐봤다.

“누구야?”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다.

“케일럽?” 케니가 물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어둠속에서 나왔다. 케니는 그제야 그게 케일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케니가 다가갔지만 케일럽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멈췄다.

“그게 뭐야?”

“소총이야.”

케니는 어둠 속에서 총을 보려 했다. 그리고 여관에서 벌어졌던 일이 떠올랐



다. 케니가 화를 내며 따지듯 말했다. “어디 갔었어? 그렇게 나를 떠나는 법이 어디 있어.”

케일럽이 설명했다. “그 사람들이 날 찾아내서 잡을까봐 그랬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했던 말이야. 윌링헤스트가 뭘 할 지에 대해서 더 얘기한 건 없어?”

“네가 뭘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 여기로 뱃사람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 하고 있었어.” 케니가 말했다.

“나도 들었어. 길에서 누구 본 사람 있어?”

“아니.”

“이제 곧 그 놈들이 와서 말도 걸고 시비도 걸 거야. 반응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도 않겠지. 그게 그놈들이 원하는 구실이야. 그럼 놈들에게 반응을 해 줘야지.” 케일럽이 충을 만졌다.

케니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생각하며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다. “그게 바로 윌링헤스트가 바라는 것일 수도 있어.” 케니가 마침내 입을 뗐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는 상관없어.” 케일럽이 말했다. 그리고는 확인하듯이 덧붙였다.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어. 폭풍이 불면 놈들이 멈출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은 거친 날씨라면 질색이거든.”

둘은 나란히 앉아 프로비던스 스트리트를 바라보았다. 이따금씩 남쪽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고는 천둥이 낮게 우르릉 쳤다. 케니는 폭풍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동안 두 소년 다 말이 없었다. 정적을 깨고 케니가 말했다. “케일럽, 파든 윌링헤스트가 이 모든 걸 다 계획한 거야.”

“사람들을 모은 거? 나도 알아.”

“아니 그거 말고 더 있어. 넌 너무 빨리 가버렸어. 윌링헤스트가 날 찾아내서 끌어갔어.” 어둠 속에서도 케니는 케일럽의 눈을 볼 수 있었다. “내가 그 방에서 전부 다 들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 케일럽, 그 사람은 네가 거기 있다가 나간 것도 알고 있었다고. 또…….” 케니가 더듬거렸다.

“뭔데?” 케일럽이 말했다.

케니가 한숨을 쉬었다. “난 그 사람을 21세기에서부터 알고 있었어.”

케일럽이 낮은 목소리로 욕을 했다. “확실해?”

“그 사람이 그 때 밤에 창 밖에 있던 그 남자야.”

“내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케일럽이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 일어났던 모든 일이 자기가 만든 거라고 말했어. 그 사람 말이 맞아?” 케일럽이 대답이 없자 다시 물었다. “맞는 거야?”

“그러지 않길 바라야지.”

케일럽의 말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확실한 거야?” 케니가 물었다.

케일럽의 침묵은 케니가 두렵게 만들었다. “케일럽. 윌링해스트는 내가 다치거나, 내 일부가 바뀌거나, 뭔가를 잃어버리면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했어.” 케니가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며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서 내 열쇠고리를 가져간 것 같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럼 난 돌아갈 수 없겠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데?”

“말해주지 않던데.”

잠시 뒤 케일럽이 일어섰다.

케니는 어둠 속에서 불안하게 케일럽을 바라봤다.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너도 그 사람이 내게 한 말에 대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난 네가 날 도우려 온 줄 알았는데.” 케일럽이 말했다.

“맞아.” 케니가 재빨리 답했다.

“그럼 여기서 멈추지 마.” 케일럽이 말했다.

케니는 또다시 갇힌 기분이 들었다. “케일럽, 앞으로 올 사람들 중에 널 죽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아마도.”

“아직 누군지 모르겠어?”

케일럽이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들 중 한명이겠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볼 거야?”

“글쎄. 어떻게 해서든…….” 케일럽이 말을 멈췄다.

“그게 뭐야?” 케니가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들어봐.”

서로 누구 목소리가 큰지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멀리서도 들으라는 듯이 크고 소란스럽게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취했어. 맨 정신에 올 용기도 없는 거야.” 케일럽이 무시하며 말했다. 총을 가슴 앞으로 놓았다.

케니도 일어섰다. 둘은 횃불을 먼저 봤다. 그 둘은, 바람이 불자 불길이 거세게 일었다. 그리고는 횃불은 뜨겁고 강렬하게 밤의 어둠을 갈랐다.

케니가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세 보려 했다. 처음에는 열 세 명 정도 되어 보였다. 다시 보니 스무 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케니가 케일럽 쪽으로 몸을 돌렸다. 횃불의 빛 때문에 케일럽의 목 근육이 긴장감으로 요동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이제 가야할 것 같아.” 케니가 말했다.

“여기로 올라오게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케일럽이 말했다.

“케일럽, 나 무서워.” 케니가 물러나며 말했다.

“나라고 안 그럴 것 같아?” 케일럽이 총을 쏘았다. 케일럽은 손에 총을 들고 길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다.

아래에 있는 남자들은 부르던 노래를 멈췄다. 그들은 케일럽이 서있는 곳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서성이며 서로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게 분명했다. 그들이 아직 케일럽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 역시 분명했다.

“우리가 더 가까이 가도 돼.” 케니가 그들 중 한 명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무슨 짓을 하지는 않을 거야.” 다른 한 명이 동의했다.

“저기를 봐. 문이 전부 닫혀있어. 침대에 자빠져 잠이나 자겠지.”

그 말에 나머지 사람들이 웃었지만 그건 마치 이제 거의 다 왔고 즐겁다는 걸 스스로에게 주입시키려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닌 억지웃음이었다.

“바보같이 무서워했네.” 서로에게 말했다.

“맞아. 어서. 폭풍이 불기 전에 끝내자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언덕 위를 더 올라왔다. 케니는 그들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었다. 적어도 세 명 정도는 케니 또래 아이들로 보였다. 몇몇 사람은 창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것 같았다. 또 몇몇은 곤봉을 들고 있었다. 으스스대며 걷고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니 케일럽의 예상이 맞는 것 같았다. 대다수가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

“노예여, 영원 하라!” 한 명이 소리쳤다.

“깜둥이들에게 자유는 없다!” 다른 한명이 함께 소리쳤다.

케니는 기분이 나빴다. 케니 쪽으로 불어오는 더운 바람과 술 취한 사람들의 격렬함이 함께 소용돌이쳤다.

그 무리가 근처에 있는 집에서 반응이 있는지 살피려 기다리는 동안 잠시 정적이 있었다. 아무 반응이 없자 그 사람들은 더 대담해지고 더 소란스러워졌다. 그들은 언덕 위로 조금 더 올라왔고 케니와 케일럽이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은 눈치 채지 못했다.

창과 곤봉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며 몇몇은 환호했다. “노예 만세!”

케일럽은 몇 걸음 더 다가갔다. 케니는 불안하게 바라보며 그림자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케니는 케일럽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애써 숨기려 한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방어막인 것처럼 빛으로 만든 둥근 원 안에 계속 있으면서도 쉬지 않고 소리치며 앞으로 거칠게 나아갔다.

가장 먼저 케일럽을 본 것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앞쪽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어설픈 듯 멈춰서 등불을 높이 들고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뒤에 있던 이들은 앞쪽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혀 서로 욕하고 소리쳤다.

그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케일럽을 바라봐도 케일럽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 무리는 가만히 있었다. 케니는 바람에 나뭇잎이 나부끼는 소리를 들었다. 흐느끼는 소리 같았다.

그 무리 중 한명이 목소리를 높였다.

“깜둥아, 네가 길을 막고 있잖아.”

“여기가 네 땅이냐!” 다른 사람이 조롱했다.

케일럽은 가만히 있었다.

“맞아, 우린 그냥 산책하는 중이야.” 또 한명이 비웃었다.

케일럽이 그들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저리 가! 사라지라고!” 목소리에 엄청난 압박이 있는 걸 케니는 들을 수 있었다.

“애 그냥 꼬마야.” 누군가가 말했다. 케일럽이 어리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안심한 듯 보였다.

“우리한테 가라고 하지 마!” 누군가가 외쳤다.

“우리도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성했다. 케니는 무리 중 일부가 길에 또 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케일럽을 지나쳐 가려는 걸 보았다.

“문제없을 거야. 집에 가자.” 케일럽이 말했다.

남쪽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천둥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케니는 어서 폭풍우가 불어와 일어날 것 같은 일을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 깡둥이한테서 무기 얼른 뺏어! 어서! 치우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 때 한 남자가 땅으로 몸을 숙였다가 뭔가를 뒤적거리고는 일어섰다. 케니는 그 남자가 손에 돌맹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 그 돌맹이가 공기를 가르고 케일럽 근처로 떨어졌다. 당황한 케일럽이 뒤로 꺾충 물러났다.

케일럽이 어색하게 물러나는 모습에 무리들 사이에 긴장감이 풀렸다. 몇몇은 소리 내서 웃기도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돌을 모아 던지기 시작했다. 방어적이던 케일럽은 더 뒤로 물러났지만 빠르지도 않았고 멀리 가지도 못했다. 돌맹이 하나가 날아와 케일럽의 어깨를 쳤다. 또 다른 돌맹이가 케니의 머리 옆 통수를 때렸다. 케일럽은 비틀대면서 피가 흐르는 얼굴에 손을 대고 휘청 이다가 넘어져 충을 놓쳤다.

케니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그 때 어둠 속에서 달려 나가 케니를 일으키려 팔을 잡았다고 한다. 케일럽은 케니를 밀쳐내려 했다.

케니가 갑자기 나타나자 무리가 잠시 멈췄다. 그들은 어둠 속에 누가 또 숨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케니가 케일럽에게 소리쳤다.

무리는 뒤에 누가 없다는 걸 확인하자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다. 케니와 케일럽

주위로 더 많은 돌맹이들이 떨어졌다.

케일럽은 몸을 움직여 케니와 멀어졌다. “얼른 여길 빠져나가!” 케일럽이 외쳤다. 케일럽의 눈은 두려움으로 커졌다. 케일럽은 총을 주위 긴장한 듯 움켜쥐었다.

무리 중 한명이 빠져나와 케일럽 쪽으로 횃불을 던졌다. 그 횃불이 별똥별처럼 빠르게 공기를 가로질렀다. 또 다른 남자가 케일럽에게 달려들어 소리치며 창을 휘둘렀다. 마침내 케일럽은 케니와 함께 뒤로 돌아 언덕을 따라 올라가며 30m 정도 물러났다.

그 무리는 가장 가까운 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들은 소리치고 야유하며 가지고 있는 창으로 그 작은 건물을 공격했다.

안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무서워 우는 소리도 들렸다. 남자들은 곧봉으로 집을 부수고, 나무판자를 떼어내고 문을 부셨다. 그리고는 그 다음 집으로 이동했다.

그 광경은 케일럽이 감당하기엔 벅찬 광경이었다. 케일럽은 앞으로 휘청 이다 멈춰서 소총을 어깨에 올리고는 그들을 조준해 방아쇠를 당겼다.

갑작스러운 총성이 울리고 곧바로 비명이 이어졌다. 한 사람이 땅에 쓰러졌다. 그 사람 주위로 남자와 소년들이 얼어붙어 케일럽을 봤다가 땅에 쓰러진 동지를 바라봤다. 그 남자가 죽었다는 사실은 케니가 서 있는 그 먼 곳에서조차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케일럽은 다시 총을 장전했지만 충분히 빠르지는 못했다. 남자들이 소리를 울부짖으며 케니를 공격했다.

케일럽은 뒤로 돌아 넘어지며 총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다시 가져오려 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이 너무 가까이 와 있었고, 케니가 필사적으로 케일럽을 당기며 손을 뺐었다. 이번에는 케일럽이 손을 잡았다.

턱 끝까지 숨이 찬 둘은 언덕 꼭대기에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따라오고 있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공격한 집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보였다. 사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케일럽은 꼼짝 않고 언덕 아래 모습을 바라보았다. 피와 분노의 눈물이 케일럽의 얼굴 위로 흘렀다.

그 순간 폭풍우가 치며 갑자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었다. 천둥소리가 머리 위로 계속해서 들렸다.

“어서! 여기 있으면 안 돼.” 케니가 케일럽을 부축하며 재촉했다.

고통으로 입이 일그러진 케일럽이 뿌리치며 몸을 빼내고는 말했다. “못 가. 갈 수 없어.”

비는 계속 내려 길에는 폭포 물줄기가 이어졌다.

케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 언덕 아래로 눈길을 돌렸다. 엄청난 폭우 아래로 햇불과 등불이 평평 터지고 꺼졌다. 불타는 집들도 연기만 남긴 채 불이 꺼져 있었다.

“봐! 저 사람들이 물러나고 있어!” 케니가 소리쳤다.

사람들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 죽은 사람도 어둠 속에서 옮겨지고 있었다. 폭풍우가 퍼부어 내렸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 케니가 소리쳤다.

케일럽이 말했다. “총을 가져와야 해!”

“거기 없을 거야! 그 사람들이 가져갔을 거라고!” 케니가 소리치며 말했다. 케니는 케일럽의 팔에 손을 갖다 대고 부축했다. 케일럽도 잠자코 있었다. “얼른!” 케니가 소리쳤다.

케일럽이 뒤로 돌아 케니를 따라 갔다.

## 제 8 장

둘은 번개를 따라 움직였다. 번개가 없으면 케니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발아래로는 비와 철벽거리는 진흙 말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번개가 잦아들었고 케니는 케일럽 쪽으로 돌아 외쳤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케일럽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케니를 봤다. 케니는 그제야 케일럽과 처음 만났을 때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생각났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상처도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케니는 케일럽의 반대편으로 가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제야 케일럽이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케일럽은 등을 펴고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페리 스트리트 근처야. 이 모퉁이를 끼고 돌면 돼. 마을 뒤로 이어지는 길이거든.”

“어디로 가는데?”

“셸던 스트리트.”

“이 쪽으로?” 케니가 어둠 속을 가리키며 물었다.

케일럽이 끄덕였다. “어디서 돌아야할 지 말해줄게.”

케니가 그를 바라봤다. “너 많이 다쳤어. 괜찮아?”

“내 귀.” 케일럽이 말했다.

케니는 슬픔과 후회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케일럽,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 정말로. 진짜야. 넌 정말 용감했구나…….”

“네가 도와줄 줄 알았어.” 케일럽이 말했다.

“그리고야 싶었지…….” 케니가 입을 뗐다. 케니는 케일럽의 강렬한 눈빛을 느끼고 동시에 케일럽의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케일럽, 내가 다치면…….” 케일럽이 다친 것을 보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다치면 뭐?”

“말했잖아. 윌링해스트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난 여기 있어야 된다고 했다고. 여기에.”

“맞아, 넌…….” 케일럽이 말하고는 뒤돌아 가버렸다. 케일럽의 육신대는 어깨가 보였다.

“그러지마, 네 방으로 가자.” 케니가 케일럽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 \* \*

집의 뒷문은 열려 있었다. 둘은 케일럽이 이끄는 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케니는 양초를 찾아 불을 붙여 초에 불을 밝히고는 앞쪽으로 들고 위층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케니는 올라가면서 어깨 너머로 뒤를 봤다. 놀랍게도 두 명 중 한 명의 그림자만 보였다. 누구의 그림자인지는 알 수 없었다.

케일럽은 초를 작은 방 바닥에 뒀다가 짙으로 채워진 매트리스 위에 놓았다. 작고 깜빡거리는 불이 붙은 얇은 양초가 희미한 불빛으로 방을 채웠다. 둘은 집에 있었지만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다. 케일럽은 완전히 탈진해버렸고, 케니는 떨고 있었다. 케니는 방 한 쪽 구석에 담요 같은 것을 발견하고는 케일럽에게 덮어주었고 케일럽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고맙게 받아들였다.

케니는 바닥에 자리를 잡고 벽에 기대어 케일럽을 봤다. 케일럽은 조용히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따금씩 케일럽은 얼굴 옆쪽에 손을 대고는 한숨을 쉬었다.

케니는 계단에서 그림자가 사라진 게 생각나, 촛불 옆에 손을 들어 그 작은 방을 보았다. 그림자가 없던 건 케니였다. 케니는 그제야 케일럽이 자신의 시대에

서 유령이었던 것처럼 케일럽의 세계에서는 자신이 유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얘기한다. 케일럽에게는 케니가 유령이었던 것이다.

“케일럽, 아마 오늘밤 네 덕에 그 곳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케니가 말했다.

“아마도.”

“알다시피 넌 살아 있잖아. 그 사실을 잊지 마. 너는 아직 죽은 게 아니야. 아직 그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내가 죽으려던 게 아니었어. 누군가 올 거야.” 케일럽이 말했다.

“여기로?”

“예전에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여기야.”

“그 모든 사건이?”

케일럽이 끄덕였다. 그리고는 말했다. “내가 그 놈들 중 한 명을 죽였어. 너도 봤잖아, 기억하지?”

케니는 다시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마지못해 대답했다. “응.”

“그 사람들은 그걸 납득할 수 없을 거야.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지. 두고 봐. 누군가를 정해서 내가 죽었는지 확인하러 반드시 여기로 보낼 거야.”

“그 사람을 멈출 수 있어.”

케니가 짜증내며 말했다. “무슨 수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누구?”

“내가 시장 근처에서 본 그 남자. 의회에 탄원서를 낼 거라고 했던 그 사람.

모세 브라운. 그 사람은 네 편이지 않아?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

잠시 뒤 케일럽이 말했다. “모르겠어.”

“내가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케일럽의 손이 담요 아래로 움찔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냐, 가지마.”

“왜?”

“그 사람들은 네가 떠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어. 네가 가면 그 사람들이 올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케일럽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전에 일어났던 일 그 대로라니까.”

케니가 무력감 때문에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어디 가?” 케일럽이 물었다.

“거리 좀 보려고.” 케니는 큰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는 낮은 창문 밖을 내다 보았다. 어두웠지만 행하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케일럽에게 돌아가며 케니가 말했다. “아무도 없어. 그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살아?”

“멀리 살아.”

“케일럽, 내가 누군가를 데려와야 해. 갔다가 빨리 돌아올 수 있어.” 케니가 강하게 말했다.

케일럽이 고개를 저었다. “아냐, 가지마.”

케니가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하며 문을 만졌다. 그러다 손이 못에 끼였다. 짜증을 내며 케니가 못을 비틀어 빼려고 했지만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때 케니에게 좋은 생각이 났다.

“케일럽! 내가 문을 잠글 수 있잖아. 안쪽에서.”

케일럽이 주위를 둘러보고는 물었다. “어떻게?”

“이 못으로. 잘 봐, 이 못이 다른 못 위로 앙키지, 그러면 풀리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군가를 찾으러 나가자마자 내 뒤에서 이 방 문을 잠글 수 있잖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약속할게. 30분 이상 걸리지 않을 거야. 원한다면 20분 안에 올 수도 있어. 정말로, 넌 도움이 필요해.”

“네가 가 봐도 아무도 못 찾을 거야.”

케니는 그 말을 무시하고 못을 꼬아서 문에 박았다. 빠르게 문이 잠겼다. “봤지? 효과가 있다니까.”

케일럽이 일어나서 다가와 문을 열려 했다. 잠겨 있었다. 케일럽이 아직도 피를 흘리며 매우 약해진 모습이 보였다. 케니는 더더욱 도움을 청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됐어?” 케일럽에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넌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하지만 길을 가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더 멀리 가지 않을게. 약속해.” 케니가 말했다.

“그냥 어서 가.” 케니가 체념하며 말했다. 케니는 매트리스에 누워서 옆으로 몸을 돌려 벽을 마주봤다.

잠시 케니는 케일럽의 등을 보며 망설이고 서 있었다. 등에 핏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케니는 도움을 청하러 갈 시간이 충분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갈게.” 케니가 말했다.

문을 밀어 닫고는 케니가 문 밖에서 소리쳤다. “나 나왔어!” 케니는 방에서 다락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곧 케일럽이 방 안에서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못을 꼬아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케니가 문고리를 돌려보았다. 다시 잠겨 있었다. 케일럽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갔다.

비는 그쳐 있었다. 머리 위로 하나, 둘, 별이 뜨기 시작했다. 빠르게 지나가는 구름 뒤로 달빛이 보였다. 케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상쾌했고 맑았다.

케니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뭔가가 없나 거리를 위 아래로 살폈다. 그리고 인도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다. 케니는 자신의 열쇠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베네프 스트리트를 향해 막 달리기 시작했을 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케니 허도프!”

그 말은 그날 밤 들었던 어떤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그 거리를 울렸다. 너무 빠르게 돌아봐 넘어질 뻔 했다.

한 남자가 거리 한 가운데 서 있었다. 이마를 덮은 삼각 모자부터 어깨를 덮어 무릎으로 내려오는 망토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과든 윌링헤스트였다.

“애야! 이리 와!” 그가 불렀다.

그 소리에 저항할 만한 여지는 없는 것 같았다. 케니는 쿵쿵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남자에게 다가갔다. 케일럽 말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윌링해스트는 한 손을 들고 서 있었다. 그 손에는 달빛아래 뭔가가 빛나고 있었다. 케니의 열쇠고리였다.

“아직 가지고 있단다.” 윌링해스트가 말했다.

케니는 무서워서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할 거라곤 이걸 던지는 것 뿐 이지.” 말과 함께 그는 던지는 시늉을 했다. “아니면 망가뜨리거나.” 그는 손가락으로 열쇠고리를 감싸 쥐었다. 열쇠고리는 빛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넌 여기 남게 될 거야. 혼자 영원히. 네 시대가 아닌 시대에 갇히게 되는 거지.”

열쇠고리를 흔들어 보이면서 말을 이었다. “아니면 네가 살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지. 네 집으로. 네 삶으로.” 윌링해스트는 제안을 하는 것처럼 놀리듯 열쇠고리를 들고 있는 것 같았다.

케니는 열쇠고리로 손을 뺄 수밖에 없었지만 윌링해스트는 웃으며 손을 거뒀다.

“네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고 여관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게 뭔지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케니는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너무 겁이 났다. “그게 뭔데요?”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윌링해스트가 망토 아래 손을 뺀어 쌍발총을 꺼냈다. 놀란 케니가 뒷걸음질 쳤다. 윌링해스트는 그런 케니 앞에 총을 내밀었다.

그가 말했다. “저기 위에 있는 그 노예를 죽여.”

케니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날 죽인 사람을 찾아줘’라고 네게 말했잖지. 그리고 넌 찾아냈어. 네가 몰랐던 건 네가 너 자신을 찾고 있었던단 사실이야. 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일을 정리하는 것뿐이고.”

“처음엔 누구였는데요?”

“나.”

“하지만 신문에는 그냥 자살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신문이라…….” 윌링해스트가 비웃듯 말했다. “처음엔 제대로 나와 있었지.

‘올니레인 폭동 후 살해된 노예’라고. 그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

“하지만 케일럽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자기의 자유를 주장했어. 그래서 상황이 바뀌길 바라면서 그 집에 갇혀 있었던 거야. 그 집에 살았던 게 네가 처음인 것 같니? 유령을 본 게 네가 처음 같아? 여기까지 온 건 네가 처음일까? 아니야. 케일럽은 집요했지. 하지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개는 항상 실패한다는 거야. 기억이 떠오르면서 나도 다시 과거로 오게 됐지. 나도 개 기억의 일부잖아? 그리고 난 또 그 과거 안에서 개를 막는 거야. 결국 난 역사학자이자 기억의 수호자가 되었지. 내가 선택해서 만든 기억 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정리할 때마다 뉴스 기사 역시 바뀌지. 너는 바뀐 기사를 읽은 거야.”

케니는 고개를 저었다.

“맞아, 너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방에서 이 총으로 케일럽을 쏘게 될 거야.

이 총은 장전도 되어 있고 언제든지 쏠 준비가 있어. 두 총열 다. 그냥 잠금장치를 풀고, 방아쇠 두 개 중 하나를 당겨. 그러면 다 끝날 거야. 첫 번째 총알이 불발될 경우엔 두 번째 총열을 쓰면 돼.

일이 다 끝나고 케일럽이 쓰러져 바닥에 피가 흐르는 걸 내가 확인하고 나면 네 행운의 부적을 돌려줄게.

받아, 안에서 문을 잠그고 권총을 개 손에 쥐어줘. 그리고는 네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절대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일단, 케일럽의 죽음은 오늘밤 뱃사람들에게 무력을 쓰고, 또 그 중 한 명을 쏘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자살로 보도가 될 거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도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거야.

물론 올바른 사람들은 그게 자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지. 하지만 그 일을 저지른 너는 모든 힘과 시간이 미칠 수 없는 곳에 있게 될 거야.”

“안할 거예요.” 케니가 가까스로 말을 뱉었다. “안 해요.”

“저런,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후회하게 될 거야. 출구를 찾으려고 하겠지. 하지만 난 네가 할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네가 한 일은 잊게 되겠지.”

“왜요?” 케니가 물었다.

“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윌링헤스트가 차갑게 말했다.

그는 의식이라도 치르는 것 같은 몸짓으로 총을 땅에 내려놓았다. “공평하게 주고받는다고 생각해라. 그 아이의 목숨을 살리고 네 목숨을 잃을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맹세하건데 내 모든 걸 동원해 널 여기 남아있게 만들겠다. 동틀 때 까지 시간을 주마.”

윌링헤스트는 그 말을 남기고서 케니를 혼자 둔 채, 뒤로 돌아 질퍽이며 거리를 내려갔다.

제정신이 돌아온 케니는 빠르게 몸을 숙여 총을 집어 들었다. “안 해! 안 한다고!” 케니가 소리쳤다.

하지만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윌링헤스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케니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 제 9 장

케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케일럽, 케일럽?” 케니가 불렀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야, 케니.”

“잠깐만.” 케일럽의 목소리가 들렸다. 못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케일럽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케니인 것을 확인하고는 남은 문을 활짝 열었다. “말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렸네.”

“미안해.” 케니가 들어가며 말했다.

“누구 좀 찾았어?”

“아직 불이 켜진 집을 찾긴 했는데 대답이 없었어.” 케니가 답했다.

“너무 늦었잖아. 이제 곧 해가 뜰 거야.”

“아직도 얼굴이 아파?”

“열이 나는 것 같아. 너무 힘이 없어.” 케일럽이 다시 매트리스로 돌아가 누웠다.

케니는 다시 바닥 위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벽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는 촛불 옆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케일럽을 훑쳐보았다. 얼마나 힘이 없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케니는 말했다. “네가 떠나야 할 것 같아.”

“떠나라고?”

“어서 가. 어디로든.”



케일럽이 한 팔로 힘들게 몸을 기대앉으며 말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갈수 있을만한 곳이 있을 거야. 자유로워질 수 있게.”

케일럽이 케니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뗐다. “무슨 일 있었어?”

케니는 올려다 볼 수 없었다.

“무슨 일 있었지. 딱 봐도 알겠네. 누굴 만났지?”

케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누구였는데?” 케니가 힘주어 물었다.

잠시 뒤 케니가 말했다. 긴장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널 죽인 사람을 찾았어.”

케니가 재빨리 일어섰다. “뭐?”

“말했잖아.” 케니가 중얼댔다. 케일럽에게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케니 자신에게 닥친 비극이 마치 케일럽 때문인 것 같았다. “널 죽인 사람을 찾았다고.”

“거리에서?”

케니가 끄덕였다.

“누군데?”

케니는 말이 없었다.

“말 해! 이번엔 누구야?” 케니가 소리쳤다.

“나야.” 케니가 말했다.

촛불이 위태로워보였다. 케일럽이 경악스러운 눈으로 케니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겨우 입을 뗐다.

천천히 겨우겨우 밖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었다. 윌링헤스트가 그 곳에 있었고. 그 사람이 한 말. 요구. 협박. 마지막에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둘 사이 바닥에 둔 것 까지. 말을 마치고 케일럽의 눈을 보며 웬지 창피해진 케니는 아래를 내려다볼 뿐 말이 없었다.

케일럽이 말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누군가를 찾아보려고 하긴 했어?”

“케일럽…….”

“거짓말 하는 거지. 넌 밖에 나갔어. 윌링헤스트를 만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온

거야. 내말이 틀려?” 케일럽이 말했다.

잠시 뒤 케니가 말했다. “맞아.”

“그럼 최소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겠네.” 케일럽이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다.

“케일럽…….”

“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알겠어…….”

갑자기 케니가 총을 발로 찼다. 총이 매트리스 근처까지 미끄러져 갔다. “하지 않을 거야. 절대 안 해.” 케일럽에게 말하는 만큼 자신에게도 강력하게 되뇌었다. 케니가 이 집에 다시 돌아오고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케일럽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절대 안 해.”

케일럽의 표정이 돌아왔다. “진심이 아니잖아.”

“진심이야!” 케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거짓말쟁이!” 케일럽이 쏘아붙였다.

케니가 움츠렸다.

케일럽이 오랫동안 케니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힘겹게 발을 끌고 큰 방으로 천천히 갔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창밖을 봤다. “이리 와 봐.” 케일럽이 불렀다.

케니가 훌쩍이면서 침착함을 되찾고 따라갔다. 길 건너에는 문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케니는 의심의 여지없이 말했다. “월링헤스트야.” 그가 말했다.

작은 방으로 돌아가 서로를 바라보며 앉았다. 케니는 가슴 속 고통이 점점 커지는 것이 느껴졌다. “케일럽,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네 기억이라고 했지. 하지만 이걸 저 사람의 기억이기도 해. 게다가 그의 기억이 더 강력하지.”

케일럽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상황을 그 사람의 기억으로 만드는 게 너한테 더 쉬워서 그런 거 아냐? 상황이 네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니야.”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기억을 따르게 마련이지.” 케일럽이 비웃듯 말했다.

“난 널 죽이고 싶지 않아!” 케니가 소리쳤다.

“그럼 안 죽이면 되잖아.” 케니가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널 구하면 난 살 수가 없어!” 케니가 외쳤다.

“넌 살아 있잖아. 또 자유롭고.”

“아니야. 여기에서 난 유령이잖아. 내가 살던 때에 네가 유령이었던 것처럼. 넌 그 방에 갇혔었지. 넌 네 시대로 돌아오기 위해 내가 필요 했던 거야. 이젠 내가 널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날 다시 내가 살던 때로 보내주지 않을 거야. 케일럽, 저 사람이 한 짓이 안 보여? 우리 둘 다 가둬둔 거야! 우리 둘 다. 우린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라고.” 케니가 다시 강하게 말했다.

“다시 한 번 말할게. 날 죽이지 마.” 케일럽이 말했다.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 지만 말해줘. 그럼 내가 할게.” 케니가 자포자기하며 부탁했다.

“상황을 바꿔.”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정말 몰라?”

“그래!”

“윌링해스트를 죽여.”

케니는 말문이 막혔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 사람을 죽이면 우린 기억을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어.” 케니가 반대하기도 전에 케일럽이 몰아붙였다. “내 피가 바닥에 물들면 그 사람이 여기로 온다고 했지.”

케니가 끄덕였다.

“그 사람이 이걸 보겠지.” 케일럽이 말했다.

“이걸 여기에 둘게.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위에 내가 누워 있을 거야.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오면 너는 저기로 빠져나가는 거야.” 케일럽이 건넌 방을 가리켰다. “저걸 들고.” 케일럽이 고갯짓으로 총을 가리켰다. “나머지는 전부 너에게 달렸어.

“나?”

“나는 안 돼.”

“왜?”

“진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너 밖에 없으니까.”

케니는 배가 아픈 걸 느끼며 손을 눌렀다.

케니가 말을 이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여기로 데려와서 주머니에서 네 부적을 가져오는 거야. 네가 이 방에 있는 동안 난 도망칠게. 그럼 넌 네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넌 어디로 갈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

“네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해봐야지.”

케니가 침을 삼키고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 사람 방식대로라면 너 아니면 나 둘 중 하나만 살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케일럽이 압박했다.

케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네 피는? 어디서 구하게?” 떨림을 진정시키려 케니가 물었다.

케일럽이 얼굴의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를 누르면 또 피가 날거야. 그 걸 등에 문질러 문히고 누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는 네가 총을 쏠 거야. 월링헤스트는 생각하겠지…….”

“……내가 널 쫓다고. 그 사람이 올라올 거야. 네가 저기 누워있는 걸 보겠지.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케니는 자기가 하는 말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케일럽이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네 열쇠고리를 돌려줄 거야. 그다음 너는 그 사람을 쏘는 거지.”

“케일럽, 우리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 아마 이게 또 다른 함정일 거야.” 케니가 괴로워하며 말했다.

케일럽이 끄덕였다. “너 두렵구나.”

“응.” 케니가 인정했다.

“난 아닌 것 같아?” 케일럽이 물었다. 잠시 뒤 케일럽이 일어나 작은 방을 나서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을 바라보고는 다시 돌아왔다. “아직도 거기 있어. 더 좋은 수가 있어?”

“아니.”

“시간 얼마나 있어?” 케일럽이 물었다.

“동틀 무렵까지라고 했어.”

“어때?”

케니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케일럽은 케니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케니가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곧바로 케일럽이 셔츠를 벗어 등의 네모 모양이 보이도록 접었다. 그것을 케니에게 주었고 케니는 그것을 케일럽의 얼굴에 문지르기 시작했다.

“더 세계.” 케일럽이 아파서 움찔하면서도 얘기했다.

상처가 벌어졌다. 케니도 아팠다.

“계속해. 셔츠를 안으로 넣어.” 케일럽이 말했다.

케니가 마지못해 셔츠에 크게 빨간 얼룩이 질 때까지 피를 문혔다. 그리고는 케일럽에게 다시 주었고, 케일럽은 다시 옷을 입었다. 케니는 케일럽을 처음 봤을 때 셔츠와 너무 똑같아서 놀랐다.

케일럽이 바닥에 누웠다.

“케일럽!” 케니가 막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왜?”

“지금 상황은 예전과 너무 똑같아. 함정인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 같다고. 이게 제대로 될지 어떻게 확신해? 네가 죽을 수도 있어.”

“이미 죽었어, 난.” 케일럽이 뒤로 돌아왔다.

“처음이야?”

“매번.”

“네가 아까 ‘이번엔 누구야?’하고 물었잖아. 항상 같은 결과였던 거야? 도움을 청하고 언덕을 올라가 사람들과 싸우고……. 그게 다 전에 일어났던 일인거야?” 케니가 물었다.

“그게 내 기억이야.”

“처음에 너를 죽였던 건 바로 윌링해스트였어. 그 때 이후로 자유를 얻는데 너에게 도움을 줄 누군가를 찾으려고 했지.” 케니가 천천히 말했다.

케일럽이 끄덕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너를 배신했어.”

“몇 명은 그랬지.”

케일럽이 과거에 겪었을 모든 일이 케니 앞에 떠올랐다. 너무 끔찍했다. 하지만 케니는 뭔가 다른 걸 생각했다. “케일럽, 네가 만약에 정말로 여기서 자유를 얻게 된다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또 다른 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내 말이 맞지? 내가 묻고 싶은 건, 만약에 이번에 성공하면 상황이 정말로 바뀌냐는 거야.” 케니가 말했다.

“지금 이걸 시간 낭비야.” 케일럽이 거칠게 말했다.

“말해줘!” 케니가 외쳤다.

케일럽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얼른 넘어가자. 어서 해, 첫 번째 총열로 날 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윌링해스트에게 제대로 보여줘야 해.”

케일럽의 재촉에 케니가 문 쪽으로 물러났다. 거기서 케니는 작은 방을 보았다. 케일럽은 얼굴을 바닥에 댄 채 옆드리고 있었고, 셔츠는 피로 얼룩져 있었다. 케일럽 옆에는 타서 얼마 남지 않은 초가 작은 파란 불꽃을 보이며 타고 있었다. 아주 약한 불빛 때문에 방이 텅 빈 것처럼 보였다.

케니는 총을 들었다. 케니는 윌링해스트의 말이 얼마나 맞았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다. 케일럽을 죽이기란 정말 쉽다는 사실이었다. 케니는 아무도 모르게 케일럽을 죽일 수 있었다. 케니는 이제 자유롭게 안전하게 자신이 살던 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케니가 고개를 세게 저으면서 잡생각을 쫓았다. 그건 잘못된 것이었고, 케니는 스스로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오른손이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리는 손을 왼손으로 막았다.

최소한의 안정을 되찾은 케니가 잠긴 것을 풀고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나갔다. 총알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거의 불이 꺼질 뻔 했다가 다시 켜졌다.

다락이 밀폐되어 있어 폭발음은 귀가 터질 듯이 크게 들렸다. 연기 때문에 눈이

따끔거렸다.

케니는 순간 케일럽을 쫓다고 생각했다. “케일럽?” 어느 때보다 두려워진 케니가 물었다.

“나 여기 있어.” 케일럽이 대답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나가서 그 남자를 기다려.”

하지만 케니가 잡생각을 하며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문 옆에 남아있었다. 바닥 위 왜소해 보이는 케일럽의 모습이 벽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웠다.

케니가 시간을 끌며 물었다. “촛불 꺼줄까?”

케일럽이 고개를 저었다. “저기 있는 게 더 나아.” 케일럽은 누가 봐도 지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케니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케일럽.”

“왜?”

“이보다 무서울 순 없을 것 같아.” 케니가 말했다.

“나도 그래.” 케일럽이 말했다.

케니가 뒤돌아 나갔다.

“케니!” 케일럽이 쉼 목소리로 불렀다.

“왜?”

“이리 와 봐.”

케니가 문 쪽으로 갔다. 케일럽이 몸을 굴렸다. 케일럽이 손을 내밀었고 둘의 손가락이 닿았다.

케일럽이 말했다. “넌 내 친구야.”

\* \* \*

케니는 어둠 속을 더듬더듬 나아가며 그 작은 방에서 가능한 멀리 가서 다락방 꼭대기 계단까지 이르렀다. 그곳에서 케니는 왜 윌링해스트가 아직도 오지 않을까 궁금해 하면서 소리를 듣고 있었다. 윌링해스트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케니의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다. 케니가 방 쪽을 바라봤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양초 조각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소리였다.

“케일럽?” 케니가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가서 보지 않았지만, 밤사이 일어났던 일 때문에 지쳐 곪아떨어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순간 케니는 모든 것이 예전에 일어났던 일과 아주 똑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윌링해스트가 바라던 그대로였다. 케니 자신을 둘러싼 운명이 끝나는 것을 느꼈다. 케일럽의 운명 역시 마찬가지였다. 케일럽을 죽여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이 상황이 지긋지긋했다.

윌링해스트에 대한 증오가 열병처럼 강하게 꿈틀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를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누군가를 죽인다는 생각은……. 케니는 목서리를 쳤다. 케니는 이 모든 게 그저 기억 속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침착하려고 했다.

‘기억이 현실일까? 기억을 죽일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 속으로 물었다.

계단 아래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케니가 숨을 죽였다.

케니가 떨어지면서 계단 가장 위쪽으로 올라갔다. 총을 보여주지 않으려 등 뒤로 숨겼다. 그리고는 계단으로 몸을 돌렸다.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었다.

파든 윌링해스트가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케일럽이 유령처럼 바닥에서 올라오던 때가 생각이 났다. 머리 위쪽부터. 어둠으로 머리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어깨가 보였다. 다락방에 서서야 몸 전체가 보였다.

계단에 올라 잠시 멈춘 뒤 윌링해스트는 방로 가기 시작했다. 그가 예상치도 않게 멈췄다. 그는 케니가 어디 서 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뒤로 돌아 말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지 확인해보마.”

케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락 반대편 끝 쪽 작은방을 가리킬 수밖에 없었다.

윌링해스트가 작은 방으로 가 문지방 위를 밟고 섰다. 그는 안을 들여다보며 케니에게 등을 보였다.

케니가 손을 떨며 등 뒤에서 총을 꺼냈다. 겨우 총을 들기는 했지만 한 손으로 다른 손을 받치고 있었다. 케니가 윌링해스트에게 총을 겨눴다.

윌링해스트가 무심하고 아무렇지 않게 케니 쪽으로 몸을 돌렸다. 총을 보고는 웃음을 지었다. “그냥 자고 있는 거네.”

케니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팔이 떨렸다. 총은 점점 낮아졌다.



“내가 못할 줄 알았지. 용기가 좀 필요하구나. 아주 잘했어.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지금까지는. 고맙구나.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윌링해스트가 말했다.

윌링해스트가 망토 아래에서 시계를 꺼냈다. 그가 심각하게 시계를 보았다. “이제 거의 동틀 무렵이구나.”

케니가 그를 바라봤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윌링해스트가 조바심으로 목소리가 커졌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다음 네 부적을 가지고 방으로 가 안에서 문을 잠그면 돼. 완전 범죄야. 너무 완벽해서 너조차도 내가 한 일을 다 잊어버릴 거라고. 네 기억이 네 알리바이야. 약속하마. 후회할 일은 없을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라. 하지만 지금 빨리 해. 네 자신을 구하고 싶다면.”

케니가 윌링해스트의 목소리에 이끌리듯 앞으로 나아갔다. 손에 있는 권총의 무게가 느껴졌다.

“가까이 오렴. 한 발 밖에 남지 않았어. 허비하면 안 돼.” 윌링해스트가 한걸음 다가가며 구슬리듯 말했다.

케니가 멈춰서 방을 바라봤다. 작은 불빛을 내며 얼마 남지 않은 채 타들어가는 촛불 옆에 잠자는 케니가 보였다.

“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거야. 영원히. 방아쇠를 당겨! 어서!” 윌링해스트가 재촉했다.

총이 달각하고 장전되는 소리가 마치 다른 사람이 한 듯이 케니의 귀에 들려왔다.

빈손이었던 윌링해스트가 케니의 열쇠고리를 꺼내 들고는 말했다. “이것 봐.”

케니가 몸을 돌렸다. 윌링해스트의 손에서 빛나고 있는 열쇠고리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그리고는 마주한 벽을 보았다. 열쇠고리 그림자가 단두대의 올라미 같았다.

“바보야! 지금 당장 해! 개는 그럴 운명이었어! 네 목숨은 내가 구해야지, 케니 허도프!” 윌링해스트가 소리쳤다.

케니가 떨면서 총을 들었다.

“그렇지.” 윌링해스트가 압박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운명처럼 될 거야. 개는 너

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약속대로 그가 열쇠고리를 내밀었다.

케니가 방아쇠를 당겼다.

\* \* \*

케니가 말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졸린 와중에 침대에 누웠다. 점점 완전히 의식이 돌아왔다. 일단 케니가 자신의 다락에 있다는 생각이 들자 재빨리 침대에서 내려와 작은 방으로 달려갔다. 방바닥 위에 얼룩이 사라져 있었다.

케니는 역사박물관으로 달려가 신문 열람실로 내달려가 예전에 자신을 도와줬던 사서에게 말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봤던 그 필름 좀 볼 수 있을까요? 1800년 8월 27일이요.”

필름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1800년 8월 27일에 나온 신문이었다. 케일럽의 죽음에 대한 기사는 없었다. 하지만 다른 기사가 있었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

파든 윌링 해스트,

애석한 죽음

상인이자 노예 무역상 파든 윌링해스트의 애석한 죽음이 전해졌다. 윌링해스트는 셸던 스트리트 15번지 위층 방에서 발견되었다. 권총이 그의 옆에서 발견되고 방문이 안에서 잠긴 죽음에 관련된 상황으로 보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왜 이 집에서 죽었는지에 관련해 밝혀진 바는 없다. 한편 다니엘 스틸웰의 노예 케일럽이 같은 집에서 도망쳤다. 그에 대한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케니가 사서에게 필름 꾸러미를 돌려줬다.

사서가 필름을 받으며 말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윌링해스트에게 허락 받았다고 했었지? 확인해봤는데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일하지 않더구나.”

케니가 현대 도시인 프로비던스 북쪽에 있는 오래된 묘지로 나를 데려갔다.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케니가 말했다.

허름한 곳이었다. 비석들이 내던져진 듯 있었고 이상한 각도로 세워져 있었다. 여기저기 이상한 조각들이 눈에 띄었다. 많은 비석들은 완전히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케니는 어디로 가야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저기예요.” 가리키며 말했다.

케니가 가리킨 비석을 봤다. 오래된 무덤이라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그 무덤은 덩그러니 울타리 안에 있었고 거기엔 그 무덤만 있었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파든 윌링해스트  
1704년 생  
1800년 8월 18일 프로비던스에서  
96세의 나이로 사망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거둬  
영원히 잠들다

케니가 말했다. “저예요. 제가 그 손이에요. 돌이켜 보면 케일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개는 떠났겠죠. 저는 방에 남겨져 있었어요…….” 케니가 잠시 멈춰 비석을 보았다. “……윌링해스트와 함께요. 제가 열쇠고리를 빼냈어요.”

그 때 케니가 주먹에 열쇠고리를 움켜쥐고 있는 게 보였다.

케니가 말을 이었다. “난 잠이 들었죠. 그리고 일어났고……. 여기. 지금이에요.”

케니를 보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케니가 나를 바라봤을 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케니가 조용히 말했다. “케일럽에 대해 계속 생각해요. 개가 그 방을 나갈 수 있게만 도왔어요. 웬지 개는 아직도 기억을 바꾸려고 애쓰면서 다른 집, 다른 방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저기 많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기 프로비던스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케니의 표정이 애절해 보였다. “케니가 이제 자유의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케니가 물었다. “정말로, 자유의 몸일까요?”

1988년 3월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서